

대장주를 추적하는 외인/기관 알고리즘

세력 추종 조건검색식 33

"조건검색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지속하는데에 필수다!"



TRADING INSIGHT

제1장. 조건검색식의 언어: 캔들·가격·거래량·시간을 논리로 바꾸는 법

1. 왜 우리는 '검색식의 언어'를 배워야 하는가?

주식 시장은 매일 수천 개의 종목이 쏟아내는 데이터의 바다입니다. 초보 투자자는 차트의 화려한 색깔과 움직이는 호가창에 현혹되어 감정에 휘둘리지만, 프로 트레이더는 그 이면의 '숫자'를 읽습니다. 우리가 HTS(Home Trading System)에서 사용하는 '조건검색식'은 단순히 종목을 찾아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의 에너지를 수학적 논리로 번역하여 나만의 필터로 걸러내는 *****트레이딩 언어*****입니다.

많은 이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급등하는 종목을 찾아줘"라는 모호한 생각으로 검색기를 만듭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급등'이라는 감성적인 단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컴퓨터에게 명령하기 위해서는 "최근 5봉 이내에 거래량이 전일 대비 500% 이상 폭증하며, 주가가布林저밴드 상한선을 3% 이상 돌파한 종목"이라는 명확한 **논리적 문장**이 필요합니다. 1장에서는 차트 위의 시각적 정보를 어떻게 검색식이라는 문법으로 치환할 것인지 그 기초 설계 원리를 다룹니다.

2. 검색식의 4대 문법: 캔들, 가격, 거래량, 시간

주식의 모든 데이터는 결국 네 가지 요소로 귀결됩니다. 이 요소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단타용 스캐너가 될 수도, 중장기 스윙용 탐지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① 캔들(Candle): 심리의 형상화

캔들은 특정 기간 동안 매수세와 매도세가 싸운 결과물입니다.

- **논리의 변환:** '장대양봉'을 검색하고 싶다면 '주가 변동폭'이나 '시가 대비 종가 등락률'을 이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가가 시가보다 7% 이상 높음"이라는 조건은 시장의 강력한 의지를 뜻합니다.
- **활용:** 캔들의 몸통 길이는 신뢰도를 의미하며, 꼬리의 길이는 저항과 지지를 의미합니다. 이를 수치화하면 세력의 이탈 여부를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② 가격(Price): 가치의 기준점

가격은 이동평균선, 이격도, 신고가 등 다양한 지표의 근간입니다.

- **논리의 변환:** "현재가가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다"는 것은 최근 한 달간 산 사람들의 평균 단가보다 현재 가격이 높다는 뜻이며, 이는 곧 '수익 구간'에 있는 매물이 많아 추세가 살아있음을 의미합니다.
- **활용:** 돌파 매매를 원한다면 '가격의 위치'를, 눌림목 매매를 원한다면 '가격의 회귀'를 논리에 넣어야 합니다.

③ 거래량(Volume): 속이지 못하는 유일한 지표

주가는 속여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거래량은 해당 가격에 들어온 '돈의 총량'입니다.

- **논리의 변환:** 단순히 "거래량 많은 순"으로 정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평소 평균 거래량 대비 10배 이상 터진 지점" 혹은 "거래대금 1,000억 이상"과 같은 절대적·상대적 기준이 결합되어야 비로소 '돈이 들어온 종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 **활용:** 거래량 없는 상승은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검색식 설계 시 반드시 거래량(또는 거래대금) 조건을 포함하여 '허수'를 걸러내야 합니다.

④ 시간(Time): 기회의 창

주식 시장에서 시간은 곧 변동성입니다. 장 초반 9시부터 10시 사이의 데이터와 오후 2시 이후의 데이터는 그 무게감이 전혀 다릅니다.

- **논리의 변환:** 'n분봉' 기준의 검색식 설정은 시간을 논리로 바꾸는 핵심입니다. 단타 스캐너라면 1분봉이나 3분봉의 변화에 민감해야 하며, 스윙이라면 일봉과 주봉의 완성도를 체크해야 합니다.

3. 'And'와 'Or' 그리고 'Not': 논리 연산자의 마법

조건검색식 설정 창을 열면 나타나는 (A and B), (A or B) 같은 기호들은 검색식의 '골격'입니다.

1. **AND (교집합):**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안정성은 높지만 종목이 적게 나옵니다. "안전한 우량주 중에서도 지금 막 고개를 든 종목"을 찾을 때 유용합니다.
2. **OR (합집합):** 여러 신호 중 하나만 걸려도 포착합니다. 유연성이 높습니다. "5일선 돌파 혹은 20일선 지지"처럼 다양한 타점을 동시에 감시할 때 사용합니다.
3. **괄호와 조합:** (A and B) or (C and D) 같은 복합 문장을 구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오전주 주도주 패턴"이거나 "오후장 낙폭과대 반등 패턴"인 종목을 하나의 검색기에서 모두 보고 싶을 때 필수적입니다.

4. 1장을 마치며: 당신의 눈을 숫자로 치환하라

숙련된 사냥꾼은 숲의 움직임만 보고도 짐승의 종류를 맞춥니다. 트레이더에게 조건검색식은 그 숲을 대신 감시해 주는 '지능형 CCTV'와 같습니다.

이제부터 차트를 볼 때 단순히 "예쁘다", "많이 올랐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 차트의 특징을 어떤 지표와 숫자로 표현하면 컴퓨터가 똑같이 찾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십시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되는 순간, 당신은 시장을 이기는 자신만의 무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2장에서는 이렇게 세워진 논리를 바탕으로, 수익을 내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오답 노트' 같은 과정, 즉 **쓰레기 종목을 걸러내는 필터링의 원칙**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제2장. 베이스 필터의 원칙: "쓰레기 종목"을 먼저 버리는 조건들

1. 공격보다 무서운 것은 '방어'의 부재다

많은 투자자가 조건검색식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은 '급등주 포착'입니다. 어떻게 하면 상한가 가는 종목을 빨리 잡아낼까에만 혈안이 되어 있죠. 하지만 숙련된 프로 트레이더의 검색기는 조금 다릅니다. 그들의 검색기 상단에는 항상 **필터링 조건**이 먼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는 약 2,500개가 넘는 종목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내일 당장 거래정지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종목, 세력의 장난질에 휘둘리는 소형주, 거래량이 없어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좀비 종목'들이 수도룩합니다. 2장에서는 우리가 화려한 수익 모델(3~8장)을 설계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쓰레기 종목 분리수거**의 기술을 다룹니다.

2.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할 '대상 제외' 설정

HTS 조건검색 설정 창에는 [대상 제외]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은 검색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필터입니다. 다음 항목들은 예외 없이 체크하여 내 검색기에서 원천 봉쇄해야 합니다.

- **관리종목 및 투자주의/경고:** 재무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었거나 단기 투기세력이 붙어 리스크가 감당 안 되는 종목들입니다.
- **우선주:** 유통 물량이 적어 세력이 주가를 마음대로 주무르기 쉽습니다. 기술적 분석이 무의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 **정지/정리매매:** 당연히 거래가 불가능하거나 상장폐지 직전의 종목입니다.
- **환기종목:** 거래소에서 "이 종목은 위험하니 조심하세요"라고 내놓고 경고하는 종목입니다. 굳이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습니다.
- **ETF/ETN/스팩(SPAC):** 일반적인 개별 종목의 차트 흐름과 다르므로, 주도주 검색기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3. '돈의 흐름'을 증명하는 거래대금 필터

"거래량이 깡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검색식에서는 단순히 거래량(주식 수)만 봐서는 안 됩니다. 1,000원짜리 주식 100만 주와 100,000원짜리 주식 100만 주는 그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래대금**이라는 필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 **최소 거래대금 설정:**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소외주는 호가창이 얇습니다. 내가 1,000만 원어치를 사려고 해도 호가창이 비어 있어 비싸게 사게 되고, 팔 때도 손해를 보며 팔아야 합니다(슬리피지 현상).
- **실전 수치 제안:** 데이트레이딩이나 스윙을 한다면 최소 **'최근 5일 평균 거래대금 50억 이상'** 혹은 **'당일 거래대금 100억 이상'**이라는 조건을 반드시 넣으십시오. 이 필터 하나만으로도 소외주에서 발생하는 허위 돌파 신호를 80% 이상 걸러낼 수 있습니다.

4. 동전주와 저가주: 가난한 종목의 함정

가격이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는 적은 금액으로도 큰 등락률을 보여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착시입니다. 동전주는 대개 기업의 펀더멘탈이 망가진 경우가 많고, 한두 개의 호가만 변해도 등락률이 요동치기 때문에 검색식의 논리를 망가뜨립니다.

- **주가 범위 설정:** 최소 '**현재가 1,000원 이상**' (안정성을 위한다면 2,000원 이상)으로 설정하십시오.
 - **시가총액 필터:** 너무 작은 종목(시가총액 300억 미만 등)은 작전 세력의 손바닥 위에서 노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 시가총액 500억~1,000억 이상의 종목을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기술적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는 길입니다.
-

5. 재무적 안전장치: 상장폐지 시즌을 대비하라

매년 3월, 감사의견 거절로 인한 무더기 상장폐지 시즌이 돌아오면 많은 개미 투자자가 눈물을 흘립니다. 차트가 아무리 예뻐도 기업의 내부가 썩아 터져 있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 **자본잠식 및 부채비율:** 부채비율이 너무 높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종목은 검색식에서 배제하는 조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영업이익 적자:**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인 기업을 제외하는 필터는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주는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

6. 2장을 마치며: 깨끗한 도화지를 준비하라

2장에서 다룬 내용들은 사실 재미가 없습니다. 수익률 30%를 약속하는 화려한 기법도 아니고, 그저 "하지 마라"는 잔소리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검색식 설계는 요리와 같습니다. 썩은 재료(잡주)를 가지고 아무리 훌륭한 레시피(기법)를 적용해 봐야 결과물은 식중독(계좌 손실)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베이스 필터를 통해 깨끗하고 신선한 재료들만 남겼습니다. 이 '깨끗한 도화지' 위에 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장의 돈을 훔어오는 **장 초반 스캐너**의 실전 레시피를 그려나갈 것입니다.

제3장. 장 초반 스캐너: 시가·갭·분봉 패턴 공략

1. 전장의 첫 1시간, 승부는 여기서 결정된다

주식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시간은 단연코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의 1시간입니다. 하루 거래량의 30~50%가 이 짧은 시간에 집중되며, 당일 상한가에 안착하거나 20% 이상 급등하는 '주도주'들은 대개 이 시간대에 정체가 드러납니다.

하지만 수천 개의 종목이 동시에 움직이는 상황에서 우리 눈으로 일일이 차트를 돌려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장 초반 스캐너*****입니다. 3장에서는 밤사이 쌓인 에너지가 폭발하는 지점을 논리적으로 포착하여, 남들보다 5분 빨리 주도주의 등에 올라타는 설계법을 배웁니다.

2. 시가 갭(Gap)의 비밀: 세력의 의지 읽기

'갭 상승'은 전일 종가와 당일 시가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장이 열리기 전부터 "이 종목을 비싸게라도 사고 싶다"는 강력한 매수세가 줄을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 **논리의 변환:** 단순히 갭이 났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너무 높게 뜨면(예: 20% 이상)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에 밀릴 위험이 큼니다.
- **골든 존(Golden Zone):** 가장 확률 높은 시가 갭 범위는 **3%에서 8% 사이**입니다. 이 구간은 적당한 긴장감과 추가 상승 여력을 동시에 갖춘 구간입니다.
- **검색식 설정:** [주가등락률] 전일 종가 대비 **금일 시가 등락률 3% 이상 10% 이하** 조건을 통해 1차 후보군을 압축합니다.

3. 거래량 회전을: '진짜 돈'이 들어왔는가?

갭 상승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거래량의 속도입니다. 시가만 높게 형성되고 거래량이 붙지 않는 종목은 '가짜 갭'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일 거래량 대비 비율*****과 *****거래대금*****을 결합해야 합니다.

- **폭발적 수급 포착:** 장 시작 5분 만에 전일 전체 거래량의 10% 혹은 20%를 넘어서는 종목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작정하고 움직이겠다는 세력의 신호탄입니다.
- **검색식 설정:** [거래량비율(n봉)] **0봉전 거래량이 1봉전 거래량 대비 200% 이상** 혹은 [거래대금] **0분전(현재) 기준 50억 이상** 조건을 추가하여 시장의 돈이 쏠리는 곳을 정확히 타격합니다.

4. 분봉 패턴의 수치화: 시가 돌파의 힘

스캐너가 종목을 찾아냈다면, 이제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장 초반 가장 강력한 패턴은 *****시가 돌파*****입니다. 장 시작 후 살짝 눌렀다가 당일의 시가를 다시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시점입니다.

- **논리의 설계:** 1. 시가 대비 현재가가 위에 있을 것 (양봉 유지). 2. 장중 고가가 시가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상승할 것. 3. 단기 이평선(5분선 등)이 정배열을 유지할 것.
- **실전 레시피:** [주가비교] **시가 < 현재가 AND [주가등락률] 시가 대비 현재가 2% 이상 상승**. 이 조건은 시가 근처에서 머뭇거리는 종목이 아니라, 위로 튀어 오르는 탄력을 가진 종목만을 골라냅니다.

5. 놀림목 없는 돌파: VI(변동성 완화장치) 활용하기

주도주는 종종 너무 빠르게 올라서 잡을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이때 유용한 필터가 'VI 발동 가격' 활용입니다. VI 근처까지 급격히 상승하는 종목은 그만큼 에너지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 **스캐너의 확장:** 단순히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체결강도] 120% 이상 조건을 넣어보세요.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월등히 많다는 것을 수치로 증명하는 순간, 그 종목은 오늘의 대장주가 될 자격을 갖추니다.

6. 3장을 마치며: 스피드가 생명이다

장 초반 스캐너는 정교함보다 **속도**와 **직관성**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조건을 넣으면 종목이 아예 안 나오거나, 이미 상한가 근처에 갔을 때 포착될 수 있습니다. 3장에서 배운 핵심 로직들을 결합하여, 딱 5~7개의 종목만 실시간으로 뜨게 만드십시오.

그 종목들이 바로 오늘 당신이 수익을 거둘 '사냥터'입니다. 4장에서는 이렇게 찾은 주도주들이 꺾이지 않고 계속 가는 **추세 추종의 레시피**를 알아보겠습니다.

제4장. 추세 추종 레시피: 돌파·추세 연장 전용 조건식

1. 추세는 당신의 친구다 (Trend is your Friend)

주식 시장의 격언 중 가장 유명한 말이지만, 정작 이를 실천 검색식으로 구현하는 투자자는 많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너무 올라서 무섭다'는 이유로 하락하는 종목의 반등을 노리지만(역추세 매매), 진짜 큰 수익은 이미 상승 궤도에 진입한 종목에서 나옵니다.

****추세 추종(Trend Following)****이란 상승의 흐름이 확인된 종목에 올라타 그 흐름이 꺾이기 전까지 수익을 향유하는 전략입니다. 4장에서는 단순히 "오르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 "강력한 저항을 뚫고 새로운 시세를 분출하는 종목"을 논리적으로 찾아내는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2. 돌파의 완성: 전고점과 매물대 소화

추세가 시작되는 가장 확실한 신호는 '돌파'입니다. 주가가 특정 가격대(저항선)를 넘어서지 못하고 계속 부딪히다가, 이를 강력하게 뚫어내는 순간 매수세가 결집됩니다.

- **논리의 변환:** '전고점 돌파'를 검색식으로 만들 때는 기간 설정이 핵심입니다. 최근 5일, 20일, 혹은 250일(1년) 고가를 현재가가 경신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전 레시피:** [주가비교] 0봉전 증가가 최근 20봉 이내 최고종가 돌파. 이 조건은 한 달간의 매물을 모두 받아내고 신고가를 썼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 **거래량의 동반:** 돌파 시 거래량이 전일보다 적다면 '가짜 돌파'일 확률이 높습니다. 반드시 [거래량비율] 전일 대비 200% 이상 조건을 결합하여 돌파의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3. 이동평균선의 정배열: 상승의 고속도로

추세 추종의 가장 기본이 되는 환경은 이동평균선의 '정배열'입니다. 단기(5일), 중기(20일), 장기(60/120일) 이평선이 차례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놓여 있는 상태는 시장의 모든 참여자가 수익 구간에 있음을 의미하며, 매도 압력이 적다는 뜻입니다.

- **논리의 설계:** 단순히 정배열인 종목을 찾으면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배열로 전환되는 시점'이나 '정배열 상태에서 이평선을 타고 흐르는 종목'을 타겟팅해야 합니다.
- **검색식 설정:** [주가이동평균배열] 5 > 20 > 60 혹은 [이동평균이격도] 20일선 대비 현재가 100~105%.
 - *Tip:* 이격도가 너무 벌어지면(예: 120% 이상) 추격 매수의 위험이 있으므로 적절한 이격도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추세 추종의 핵심 방어 기제입니다.

4. 추세 연장의 신호: 신고가와 매수 잔량

상승 추세가 죽지 않고 계속 연장되는 종목은 호가창에서도 특징이 나타납니다. 특히 '신고가' 영역에 진입한 종목은 위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가볍게 날아갑니다.

- **신고가 필터:** [신고가] 0봉전 증가가 60봉중 최고가. 이는 분기 신고가를 의미하며, 강력한 테마가 형성되었을 때 자주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 **체결의 강도:** 추세가 연장되려면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야 합니다. [체결강도] 110% 이상 조건을 유지하고 있다면, 주가가 오르는 중에도 계속해서 사는 사람이 더 많다는 증거입니다.
-

5. 눌림 후 재돌파: 추세의 2차 파동

추세는 직선으로 가지 않습니다. 상승 후 잠시 쉬어가는 '눌림'이 발생하고, 다시 전고점을 돌파할 때 가장 강력한 시세가 나옵니다.

- **논리의 확장:** 5일선이나 10일선을 잠시 이탈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종목을 찾아보세요. [주가이동평균돌파] 증가가 5일 이동평균선을 골든크로스 하는 조건은 추세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알려주는 최고의 지표입니다.
-

6. 4장을 마치며: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추세 추종 매매는 바닥에서 사려고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바닥이 확인되고 무릎 위로 올라온 종목을 확인한 뒤 들어가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빠릅니다. 4장의 검색식들은 여러분을 '기다림의 지옥'에서 건져내어 '시세의 중심'으로 바로 데려다줄 것입니다.

이제 추세가 강한 종목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목이 계속 가기만 하지는 않죠. 5장에서는 과열된 주가가 잠시 식어갈 때, 즉 **눌림목과 평균 회귀**를 이용해 저렴하게 매수하는 기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제5장. 눌림목·평균회귀 레시피: 과열 뒤 되돌림 구간 찾기

1. 달리는 말도 쉬어야 갈 수 있다: 눌림목의 철학

모든 주가는 파동을 그리며 움직입니다. 수직으로 끝없이 오르는 종목은 없으며, 강한 상승 뒤에는 반드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조정' 구간이 발생합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가 이 조정 구간에서 "이제 끝났나 보다"라며 공포에 질려 손절할 때, 고수들은 조용히 검색기를 돌려 '눌림목(Pullback)' 타점을 잡습니다.

눌림목 매매의 핵심은 '평균 회귀(Mean Reversion)'에 있습니다. 주가가 단기적으로 과열되어 이동평균선과 멀어지면(이격도가 커지면), 다시 평균 가격으로 돌아오려는 성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5장에서는 단순히 떨어지는 종목이 아니라, "추세는 살아있되 가격만 일시적으로 착해진" 종목을 골라내는 논리를 설계합니다.

2. 눌림목의 전제 조건: "강한 놈이 눌러야 한다"

아무 종목이나 떨어진다고 잡는 것은 눌림목 매매가 아니라 '낙주 매매' 혹은 '물타기'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눌림목 검색식의 첫 번째 조건은 **과거의 화려한 이력**입니다.

- **상승 모멘텀 확인:** 최근 5~10일 이내에 최소 15% 이상의 장대양봉이 하나 이상 있었는가? 혹은 상한가를 기록했었는가?
- **거래량의 법칙:**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폭발하고, 눌릴(조정받을) 때는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야 합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하는 것은 세력의 이탈 신호이므로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 **실전 레시피:** [주가비교] 5봉 이내에 증가 기준 15% 이상 상승봉 존재 AND [거래량비율] 0봉전 거래량이 최근 5봉 평균 거래량의 50% 이하.

3. 지지선과 이평선: 멈춰 서는 지점을 찾아라

주가가 떨어지다가 어느 지점에서 멈출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이 눌림목 설계의 정수입니다. 가장 신뢰도 높은 지점은 주요 이동평균선과 맞닿는 구간입니다.

- **5일선 눌림:** 매우 강한 주도주가 짧게 쉬어갈 때 나타납니다. 급등주 단타에 적합합니다.
- **20일선 눌림 (황금선):** 스윙 투자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타점입니다. 한 달간의 평균 가격 지지를 확인하는 구간으로, 반등 시 수익 폭이 큼니다.
- **검색식 설정:** [가격-이동평균비교] 증가가 20일 이동평균선에 근접 (1%~2% 이내). 혹은 [이동평균이격도] 20일선 대비 현재가 98%~102%.

4. RSI와 엔벨로프: 과매도 구간의 수치화

평균 회귀를 논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보조지표를 활용하면 승률은 더욱 올라갑니다.

- **RSI (상대강도지수):** 주가가 단기적으로 과하게 빠졌음을 알려줍니다. 보통 RSI 30 이하를 과매도로 보지만, 강한 종목은 40~45 선에서도 반등합니다.

- **엔벨로프(Envelope) 하단:** 주가의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위아래 일정 비율의 밴드를 그린 지표입니다. 하단선에 닿는 것은 통계적으로 반등 확률이 매우 높은 지점입니다.
 - **실전 레시피:** [RSI] 0봉전 14일 기준 40 이하 AND [주가-엔벨로프비교] 종가가 엔벨로프(20, 10) 하위선 이하.
-

5. 재진입 신호: 거래량의 미세한 변화

놀림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인 매수'입니다. 주가가 떨어지고 있을 때 잡는 것이 아니라, 하락을 멈추고 **작은 양봉**이나 **거래량 증가**가 나타날 때가 진짜 타점입니다.

- **반등의 신호탄:** 분봉상에서 5선이 20선을 골든크로스 하거나, 하락하던 캔들이 '도지(Doji)' 형태를 그리며 하방 경직성을 보일 때입니다.
 - **검색식 확장:** [주가비교] 0봉전 증가 > 1봉전 증가 (상승 전환) AND [거래량비율] 0봉전 거래량 > 1봉전 거래량. 이 조건은 놀림의 끝을 알리는 최소한의 증거입니다.
-

6. 5장을 마치며: 공포를 논리로 이겨라

놀림목 매매는 심리전입니다. 주가가 빠질 때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것은 본능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설계한 5장의 검색식은 그 공포를 '데이터'로 치환해 줄 것입니다. "데이터가 반등 지점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믿고 진입한다"는 확신이 생길 때, 여러분의 계좌는 우상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놀림목까지 정복했습니다. 6장에서는 주가가 박스권에 갇혀 힘을 모으고 있을 때, 그 에너지가 터지는 순간을 포착하는 **박스-레인지 브레이크아웃** 전략을 다뤄보겠습니다.

제6장. 박스·레인지 브레이크아웃 레시피: 응축된 에너지가 터지는 순간

1. 스프링은 눌릴수록 더 멀리 튀어 나간다

주식 시장에서 가장 지루한 구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주가가 위아래 좁은 범위에 갇혀 횡보하는 '박스권(Box Range)' 구간입니다. 하지만 숙련된 트레이더들은 이 지루함을 '기회'로 읽습니다. 주가가 특정 가격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오르내린다는 것은, 매수세와 매도세가 팽팽하게 맞서며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브레이크아웃(Breakout)****이란 이 팽팽한 균형이 깨지며 주가가 박스의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6장에서는 지루한 횡보 끝에 대시세가 시작되는 그 '첫 번째 양봉'을 논리적으로 포착하는 스캐너 설계법을 배웁니다.

2. 박스권의 정의: 변동성의 수치화

컴퓨터에게 "박스권을 찾아줘"라고 하려면 '변동성이 낮음'을 숫자로 정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가 ****볼린저 밴드(Bollinger Bands)****와 **주가 변동폭**입니다.

- **볼린저 밴드 수렴:** 밴드의 상한선과 하한선 폭이 좁아졌다는 것은 변동성이 극도로 낮아졌음을 의미합니다. 폭발 직전의 고요함을 찾는 핵심 지표입니다.
- **기간 내 등락률:** 최근 20봉 혹은 60봉 동안 주가가 고점과 저점 사이에서 10% 내외로만 움직였다면, 이는 전형적인 박스권 응축 상태입니다.
- **실전 레시피:** [볼린저밴드(20, 2) 대폭] 밴드폭이 최근 100봉 이내 최소 AND [주가등락률] 최근 20봉 이내 최고가와 최저가 차이가 10% 이하.

3. 돌파의 신호탄: 가격과 거래량의 동시 발생

응축된 에너지가 위로 터졌음을 증명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합니다. '저항선 돌파'와 '압도적인 거래량'입니다.

- **가격 돌파:** 박스권의 상단(최근 n봉의 최고가)을 종가가 강력하게 뚫어내야 합니다.
- **거래량의 폭발:** 박스권 내에서 발생했던 평균 거래량보다 최소 3배, 많게는 5배 이상의 거래량이 터져야 합니다. 거래량 없는 돌파는 세력의 속임수(Fake-out)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검색식 설정:** [최고가 돌파] 0봉전 종가가 최근 20봉 최고가 돌파 AND [거래량비율] 0봉전 거래량이 1봉전 거래량 대비 300% 이상.

4. 박스권 돌파의 질(Quality) 결정하기

모든 돌파가 대시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돌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이평선'과 '매물대'를 추가로 점검해야 합니다.

- **매물대 상단 돌파:** 단순히 가격만 넘는 게 아니라, 매수/매도세가 가장 많이 부딪혔던 '매물대' 위로 주가가 안착했는지 중요합니다.

- **이평선 정배열 초기:** 박스권 횡보를 거치며 꼬여있던 이동평균선들이 돌파와 함께 정배열(5 > 20 > 60)로 막 퍼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가장 강력한 '날 것'의 타점입니다.
 - **실전 레시피:** [주가이동평균배열] 5 > 20 > 60 (골든크로스 발생) 혹은 [매물대 돌파] 현재가가 매물대 상단선을 상향 돌파.
-

5. 가짜 돌파를 걸러내는 '리테스트'의 원리

세력들은 종종 박스 상단을 살짝 뚫었다가 다시 박스 안으로 주가를 밀어 넣어 개인들을 털어냅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확인 매수' 전략을 섞어줄 수 있습니다.

- **분봉상 안착:** 일봉상 돌파가 일어난 날, 3분봉이나 5분봉에서 돌파한 가격대(과거의 저항선)를 이탈하지 않고 지지받는 모습을 확인하는 조건입니다.
 - **검색식 확장:** [분봉 주가비교] 0분전 종가 > 분봉상 당일 시가 AND [체결강도] 120% 이상. 이 조건은 돌파 후에도 매수세가 꺾이지 않고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

6. 6장을 마치며: 인내의 끝에 열매가 있다

박스권 매매는 사냥꾼의 매복과 같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종목을 미리 사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검색기가 "지금 터졌다!"라고 신호를 줄 때 비로소 움직이는 것입니다. 6장에서 배운 레시피는 여러분이 지루한 횡보장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가장 가파른 상승 곡선이 시작되는 '골든 타임'을 선점하게 해 줄 것입니다.

이제 기술적인 파동과 에너지를 읽는 법을 모두 배웠습니다. 7장에서는 차트 밖의 영역, 즉 뉴스·테마·이벤트와 검색식을 연계하여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을 포착하는 법을 다루겠습니다.

제7장. 뉴스·테마·이벤트 연계 레시피: 돈이 몰리는 '이유'를 포착하라

1. 차트는 결과를 말하고, 뉴스는 원인을 말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이 차트의 '형태'와 '숫자'에 집중했다면, 7장은 그 숫자를 움직이게 만드는 ***모멘텀(Momentum)***에 집중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돌파 차트라도 그 배경에 아무런 뉴스가 없다면 단발성 반등에 그칠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확실한 테마나 강력한 호재를 등에 업은 종목은 우리가 설정한 기술적 저항선을 비웃듯이 돌파하며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7장에서는 HTS의 뉴스 공시 기능과 조건검색식을 결합하여, 단순히 "오르는 종목"이 아니라 ***이유 있게 오르는 종목***을 선별하는 시스템 구축법을 배웁니다.

2. 뉴스 연계 검색의 핵심: 키워드와 반응 속도

대부분의 HTS에는 '뉴스/공시 키워드 검색'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조건검색식과 연동하거나,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의 뉴스를 즉시 확인하는 프로세스를 갖춰야 합니다.

- **돈이 되는 키워드:** '세계 최초', '독점 공급', '최대 실적', 'M&A(인수합병)', '정부 정책 발표'. 이런 단어들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즉각적으로 자극합니다.
- **반응의 수치화:** 뉴스가 뜨자마자 주가가 반응한다면, 그것은 시장이 이 뉴스를 '진짜 호재'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 **검색식 설정:** [주가등락률] 1분 이내 3% 이상 급등 AND [거래량] 최근 1분 거래량이 당일 평균 500% 이상. 이 조건은 뉴스가 터진 직후 수급이 쏠리는 찰나의 순간을 포착합니다.

3. 테마주의 순환매: 대장주를 찾는 법

하나의 테마가 형성되면 관련 종목들이 무리 지어 움직입니다. 하지만 수익은 항상 '대장주'에서 가장 크게 나옵니다.

- **대장주의 특징:** 가장 먼저 상한가에 진입하거나, 가장 높은 등락률을 기록하며, 거래대금이 압도적입니다.
- **검색식 레시피:** [등락률 순위] 당일 등락률 상위 10위 이내 AND [거래대금 순위] 당일 거래대금 상위 30위 이내.
- **응용 전략:** 대장주가 이미 상한가에 들어갔다면, 아직 오르지 못한 2등주, 3등주를 검색식으로 찾아 '찍짓기 매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항상 대장주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4. 이벤트 드리븐(Event-Driven): 예고된 잔치 공략하기

주식 시장에는 날짜가 정해진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실적 발표 시즌, 아이폰 신제품 출시일, 정부의 경제 정책 발표일 등이 그 예입니다.

- **기대감의 수치화:** 이벤트 1~2주 전부터 거래량이 서서히 늘어나며 저점을 높이는 종목들을 찾아야 합니다.

- **검색식 설정:** [기간 내 거래량 회전율] 최근 5일간 회전율 100% 이상 AND [주가이동평균배열] 일봉상 5, 20일선 정배열. 이는 이벤트 발생 전 '매집'의 흔적을 찾는 논리입니다.
 - **주의사항:** 이벤트 당일 뉴스가 뜨면 '재료 소멸'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색식은 이벤트 '직전'까지의 수익을 챙기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

5. 공시의 논리: 숫자로 증명되는 호재

뉴스보다 더 강력한 것이 '공시'입니다. 특히 제3자 배정 유상증자나 대규모 수주 공시는 기업의 체질이 바뀌는 신호입니다.

- **공시 포착 후 대응:** 공시가 뜨고 정적 VI가 걸린 종목 중, [체결강도] 150% 이상을 유지하며 VI 해제 후에도 시가를 이탈하지 않는 종목은 당일 최고의 사냥감이 됩니다.
 - **필터링:** 단순한 운영자금 조달 목적의 유상증자나 전환사채(CB) 발행 뉴스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2장에서 배운 '위험 필터'를 반드시 병행 가동해야 합니다.
-

6. 7장을 마치며: 정보와 논리의 하모니

조건검색식은 차가운 논리의 영역이고, 뉴스는 뜨거운 심리의 영역입니다. 7장을 통해 여러분은 차가운 논리로 종목을 걸러내고, 뜨거운 뉴스로 확신을 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차트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뉴스가 터지는 종목"이야말로 우리가 찾는 가장 완벽한 주도주입니다.

이제 단기적인 파동과 재료를 읽는 법을 모두 마스터했습니다. 8장에서는 조금 더 호흡을 길게 가져가며 직장인들도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스윙 전용 조건식** 설계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8장. 스윙 전용 조건식: 일봉·주봉 중심 종목 발굴

1. 시간의 힘을 내 편으로 만드는 '스윙 매매'

단타가 분 단위의 전쟁이라면, 스윙(Swing) 매매는 며칠에서 몇 주간의 '흐름'을 타는 전략입니다. 단타 매매는 높은 집중력을 요구하며 찰나의 판단으로 수익이 결정되지만, 스윙 매매는 잘 설계된 검색식 하나로 퇴근 후 혹은 주말에 종목을 골라내어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8장에서는 잔파동(Noise)이 제거된 일봉과 주봉 데이터를 활용하여, 세력이 매집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주가를 들어 올리기 직전의 '맥점'을 찾아내는 로직을 설계합니다.

2. 일봉의 정석: 정배열의 초입과 정착

스윙 매매의 대전제는 "현재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가?"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신뢰도 높은 지표는 역시 이동평균선입니다.

- **이평선 수렴과 확산:** 5일, 20일, 60일선이 한곳으로 모였다는 것은 매수와 매도 균형이 팽팽하게 맞서며 에너지가 응축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정배열로 확산하기 시작할 때가 최고의 스윙 타점입니다.
- **골든크로스의 신뢰도:** 단순히 5일선이 20일선을 뚫는 것뿐만 아니라, 거래량이 실린 양봉으로 60일이나 120일 장기 이평선을 돌파할 때 비로소 '추세 전환'이 일어났다고 판단합니다.
- **실전 레시피:** [이동평균배열] 5 > 20 > 60 AND [주がい동평균돌파] 종가가 60일 이동평균선 상향 돌파.

3. 주봉의 마법: 거대 추세의 확인

일봉은 하루하루의 뉴스에 따라 요동칠 수 있지만, **주봉(Weekly Chart)**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주봉상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일봉에서 잠시 놀리더라도 결국 제 갈 길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봉 20선 법칙:** 주봉상 20선(약 5개월의 평균 가격) 위에 주가가 위치한다면, 그 종목은 거대한 상승 사이클 속에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 **주봉상 바닥 포착:** 주봉상 RSI 지표가 과매도권(30 이하)에서 탈출하며 20주선을 향해 고개를 드는 종목은 중장기적인 저점 매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검색식 설정:** [주기설정: 주봉] 종가가 20주 이동평균선 이상 AND [주기설정: 주봉] 5주선 > 20주선 정배열.

4. 스윙의 핵심 필터: 매집과 수급의 흔적

스윙 종목은 누군가가 '매집'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개인 투자자가 따라 할 수 없는 거대 자금의 흐름입니다.

- **수급 연속성:** 최근 5일 혹은 10일 연속으로 기관이나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을 필터링하세요. 주가는 제자리인데 수급만 들어오고 있다면, 조만간 시세가 터질 예고편과 같습니다.

- **매집봉 포착:** 과거 20일 이내에 윗꼬리가 긴 대량 거래 양봉(매집봉)이 발생한 후, 거래량이 급감하며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 종목은 스윙의 황금 타점입니다.
 - **실전 레시피:** [순매수] 외국인 또는 기관이 최근 5일간 순매수합계 10만 주 이상 AND [거래량] 최근 5일간 평균 거래량이 전일 대비 50% 이하.
-

5. 스윙의 매도 전략: 언제 내릴 것인가?

사고 나서 기다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수익 실현'입니다. 스윙은 단타처럼 2~3%에 파는 것이 아니라, 추세의 끝까지 가져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 **추세 이탈 감지:** 증가가 20일선을 이탈하거나, 일봉상 5일선과 20일선의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때를 매도 신호로 잡습니다.
 - **검색식 응용:** 보유 종목이 검색식에서 사라지거나, 반대로 [매도 스캐너]를 따로 만들어 [이격도] 20일선 대비 115% 이상(과열)일 때 알람이 울리게 설정하여 수익을 확정 짓습니다.
-

6. 8장을 마치며: 느림의 미학이 주는 선물

스윙 매매는 시장의 소음에서 한 발짝 떨어져 '큰 파도'를 보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8장에서 설계한 검색식들은 여러분에게 매일의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평온함과, 때로는 한 종목에서 20~30% 이상의 큰 수익을 거두는 기쁨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제 모든 매매 전략을 훑었습니다. 마지막 9장에서는 우리가 만든 이 화려한 무기들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적들, 즉 **위험 필터와 제외 조건**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전자책의 대단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9장. 위험 필터와 제외 조건: 건드리면 안 되는 종목 골라내기

1. 수익보다 중요한 것은 '생존'이다

트레이딩의 세계에서 100번을 이겨도 단 한 번의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를 당하면 모든 공든 탑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3~8장을 통해 화려한 공격 기술을 배웠지만, 시장은 언제나 우리를 속이려 듭니다. 차트는 완벽한 돌파 패턴인데 기업 내부에서는 횡령이 일어나고 있거나, 유상증자 폭탄이 대기 중일 수 있습니다.

****위험 필터(Risk Filter)****는 단순히 "좋은 종목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파멸로 이끌 종목을 원천 봉쇄하는 것"입니다. 9장에서는 검색식 설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독소 조항들과, 차트상에서 나타나는 위험 신호들을 논리적으로 정리합니다.

2. 재무적 지뢰밭: 숫자가 말하는 경고음

차트가 아무리 예뻐도 재무제표가 망가진 기업은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검색식 설정에서 [재무] 항목을 활용해 다음 조건들을 필터링하십시오.

- **자본잠식 유무:** 자본금이 깎여 나가는 기업은 상장폐지 후보 1순위입니다. [자본잠식] 최근 결산 기준 자본잠식을 0% 미만 조건을 반드시 넣으세요.
 - **영업이익 적자 지속:** 3~4년 연속 적자인 기업은 관리종목 지정 위험이 큼니다. [영업이익] 최근 3사업연도 연속 영업이익 적자 제외는 필수입니다.
 - **부채비율 상한선:** 부채비율이 300~500%를 넘어가는 기업은 갑작스러운 유상증자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윙 매매를 한다면 부채비율 200% 이하 종목으로 한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3. 차트의 독배: 역배열과 대량 거래 음봉

기술적으로도 "이것만은 피해야 한다"는 신호가 있습니다. 아무리 거래량이 터져도 다음의 상황에서는 검색식 포착에서 제외하거나 진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 **완전 역배열 구간:** 주가가 240일, 480일 장기 이평선 아래에서 가고 있는 종목은 위로 올라올 때마다 엄청난 매물 저항에 부딪힙니다. [주가이동평균배열] $240 > 120 > 60 > 20$ 상태의 역배열 종목은 반등이 나와도 '데드 캣 바운스'일 확률이 높습니다.
 - **고점에서의 대량 거래 음봉:** 주가가 이미 수백 퍼센트 오른 상태에서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터지며 장대음봉이 나왔다면, 그것은 세력의 '설거지' 신호입니다. 이런 종목은 검색기에 뜨더라도 절대 손대지 않는 설정을 추가해야 합니다.
 - **실전 레시피:** [이격도] 240일선 대비 현재가 150% 이상 제외 (과도한 고점 종목 필터링).
-

4. 수급의 함정: 허수 매수세와 하한가 리스크

호가창이나 수급 데이터에서도 위험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 **체결강도 급락:** 주가는 오르는데 체결강도가 80% 미만으로 떨어진다면, 이는 누군가 물량을 대량으로 던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 **정적/동적 VI 활용의 역설:** VI가 발동된 후 시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종목은 당일 설거지 종목이 될 가능성이 큼니다.
 - **실전 레시피: [체결강도] 100% 이상** 조건을 기본으로 깔아두어 최소한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강한 종목만 필터링하십시오.
-

5. '대상 제외'의 완성: 마지막 점검 리스트

2장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기하며, 최종 검색식 저장 전 반드시 다음 항목들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1. **관리종목 / 투자주의 / 투자경고 / 투자위험** (이상 급등 및 재무 위험)
 2. **우선주 / 정리매매 / 단기과열종목** (비정상적 변동성)
 3. **환기종목** (상장폐지 전조 현상)
 4. **저가주(동전주)** (작전 세력의 놀이터)
 5. **거래량 미달 종목** (팔고 싶을 때 못 파는 종목)
-

6. 9장을 마치며: 무기를 다루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지금까지 1장부터 9장까지, 조건검색식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설계하는 법을 모두 배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검색식은 여러분 대신 '결정'을 내려주는 기계가 아니라, 여러분의 '원칙'을 실현해 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완벽한 검색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장 환경(상승장, 하락장, 횡보장)에 따라 여러분이 만든 300개의 레시피 중 무엇을 꺼내 쓸지는 트레이더인 여러분의 몫입니다. 9장에서 배운 위험 필터를 항상 가동한 채로,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계좌가 이 전자책을 통해 설계된 정교한 검색식들로 인해 푸른 바다(손실)가 아닌 붉은 태양(수익)으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10장. 외국인·기관 수급의 정수: '쌍끌이 매수' 포착

1. 정보의 불균형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

주식 시장에는 세 부류의 참여자가 있습니다. 개인, 외국인, 그리고 기관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차트의 모양과 뉴스에 열광할 때, 이른바 '메이저'라 불리는 외국인과 기관은 철저하게 계산된 자금력으로 종목을 매집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의 가장 깨끗하고 강력한 형태가 바로 이들입니다.

많은 이들이 "외인이 사면 오르고, 팔면 떨어진다"는 단편적인 사실에만 주목합니다. 하지만 진짜 수익은 외국인과 기관이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한 종목을 쓸어 담는 '쌍끌이 매수' 구간에서 나옵니다. 10장에서는 스마트 머니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여, 그들이 만드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는 법을 배웁니다.

2. 수급의 질(Quality): 단순 매수와 매집의 차이

컴퓨터에게 "수급 좋은 종목을 찾아줘"라고 명령하면 제대로 된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급의 질'을 숫자로 정의해야 합니다.

- **연속성의 논리:** 단 하루의 대량 매수는 단타성 물량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3일 이상, 혹은 5일 이상 순매수가 지속된다면 이는 명확한 '매집'의 신호입니다.
- **강도의 논리:** 단순히 1주라도 사면 매수로 잡히지만, 우리는 유통 물량 대비 의미 있는 비중을 체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5일간 순매수 합계가 10만 주 이상'과 같은 절대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 **쌍끌이(Dual-Drive):**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양수를 기록하며, 두 주체 중 어느 한쪽도 과하게 던지지 않는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상승의 고속도로'입니다.

3. 실전 레시피: 메이저의 흔적을 찾는 공식

쌍끌이 매수 종목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HTS의 [종목별 투자자] 데이터를 조건식으로 치환해야 합니다.

- **기본 필터링:** 먼저 2장에서 배운 대로 관리종목이나 우선주 등 '쓰레기 종목'을 제외하여 도화지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 **수급 연속성 설정:** [연속순매수] 외국인 3일 이상 연속 순매수 AND 기관 3일 이상 연속 순매수 조건을 넣습니다.
- **수급 강도 설정:** [순매수량] 최근 5일 합계 외국인 100,000주 이상 AND 기관 50,000주 이상 (종목의 시가총액에 따라 조절 가능).
- **가격의 위치:** 수급이 들어와도 이미 너무 고점이면 위험합니다. [이격도] 20일선 대비 100~105% 사이를 유지하며 막 고개를 드는 종목을 타겟팅합니다.

4. 수급과 차트의 결합: '돈이 들어온 정배열'

수급만 보고 진입하는 것은 반쪽짜리 전략입니다.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는데 차트가 **정배열(5>20>60)**로 전환되고 있다면, 그것은 메이저가 상승의 명분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특히 외국인이 밑바닥에서 물량을 받아내고, 기관이 위로 쏘아 올리며 매물대를 돌파하는 시점은 스윙 투자자에게 최고의 맥점이 됩니다. 이때 거래량이 평소보다 200% 이상 늘어난다면 신뢰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5. 10장을 마치며: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라

수급 매매는 '기다림'과 '확신'의 싸움입니다. 개인의 힘으로는 주가를 바꿀 수 없지만, 거대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숫자로 확인했다면 우리는 그들의 등에 업혀가면 됩니다.

"차트는 속여도 돈의 흐름은 속일 수 없다"는 격언을 기억하십시오. 10장에서 완성한 쌍끌이 검색기는 여러분의 계좌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방패이자, 강력한 창이 될 것입니다. 11장에서는 이러한 수급이 집중될 때 발생하는 변동성의 끝판왕, '볼린저 밴드 스퀴즈' 공략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11장. 볼린저 밴드 심화: '스퀴즈(Squeeze)' 후 폭발 지점

1. 폭풍전야: 에너지가 압축되는 구간

주식 시장의 변동성은 파동과 같아서, 크게 출렁인 뒤에는 반드시 고요한 횡보 구간이 찾아옵니다. 많은 투자자가 지루한 횡보장에서 지쳐 떠나갈 때, 프로 트레이더들은 차트의 폭이 좁아지는 현상에 주목합니다. 스프링을 강하게 누를수록 튀어 나가는 힘이 세지듯, 주가 또한 좁은 폭에 갇혀 힘을 응축할수록 터져 나오는 시세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11장에서는 보조지표의 황제라 불리는 **볼린저 밴드(Bollinger Bands)**를 활용하여, 에너지가 극도로 응축된 '스퀴즈' 상태를 포착하고 방향성이 결정되는 찰나를 타격하는 설계법을 다룹니다.

2. 스퀴즈(Squeeze)의 논리: 변동성의 수렴과 확산

볼린저 밴드는 주가의 표준편차를 이용해 상하한선을 그립니다. 밴드의 폭이 좁아졌다는 것은 최근 주가의 움직임이 매우 안정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새로운 추세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전조 현상입니다.

- **변동성 수렴의 수치화:** 단순히 눈으로 좁아진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밴드폭(Band Width)' 지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밴드폭이 최근 100봉 이내에서 가장 좁은 상태"라는 조건을 통해 에너지가 최대로 응축된 종목을 골라냅니다.
- **상단 돌파의 의미:** 에너지가 모인 상태에서 종가가 상한선을 강하게 뚫는 것은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하며 '상방'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3. 실전 레시피: 폭발의 '첫 번째 봉'을 찾는 조건

스퀴즈 이후의 돌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적 조합이 필요합니다.

- **응축 조건:** [볼린저밴드(20, 2) 밴드폭] 최근 60봉(혹은 100봉) 이내 최소값. 이 조건은 폭발 직전의 고요함을 숫자로 증명합니다.
- **돌파 조건:** [주가-볼린저밴드 비교] 0봉전 종가가 볼린저밴드 상한선 이상. 좁아진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입니다.
- **신뢰도 보강:** [거래량비율] 전일 대비 200~300% 이상. 거래량 없는 돌파는 '가짜'일 확률이 높으므로 반드시 돈의 흐름을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4. 가짜 돌파를 걸러내는 '추세 확인' 필터

모든 스퀴즈가 대시세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돌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정배열'과 '매물대'를 결합해야 합니다.

- **이평선 정배열:** 밴드 상단을 돌파할 때 5일, 20일, 60일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초입에 있다면 상승 추세가 길게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박스권 상단 결합:** 6장에서 배운 박스권 돌파 논리를 섞어, 최근 20봉 혹은 60봉의 최고가를 동시에 경신하는 조건을 추가하면 더욱 정교한 '날 것'의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5. 11장을 마치며: 기다림은 수익으로 보상받는다

볼린저 밴드 스퀴즈 전략은 인내심이 필요한 매매입니다. 매일 수십 개의 종목이 뜨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모인 소수의 종목이 확실한 신호를 줄 때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으로 포착된 종목은 당일 상한가 혹은 단기간 내 20~30% 이상의 급등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루한 횡보를 기회로 바꾸는 눈을 가졌습니다. 12장에서는 또 다른 강력한 추세 지표인 '일목균형표'를 통해 시공간을 아우르는 매매 로직을 설계해 보겠습니다.

제12장. 일목균형표의 논리: 구름대 돌파와 전환선/기준선 역전

1. 시간과 가격의 조화, 일목균형표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지표들이 주로 '현재의 가격'과 '과거의 평균'에 집중했다면, 일목균형표는 여기에 *****시간*****이라는 개념을 더한 입체적인 지표입니다. 일본의 일목산인이 개발한 이 지표는 차트 위에 구름처럼 펼쳐진 저항대를 통해 시세의 흐름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많은 트레이더가 일목균형표를 어렵게 느끼지만, 조건검색식으로 구현할 때는 핵심적인 '균형의 깨짐'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12장에서는 매물대의 총집합인 *****구름대*****를 돌파하고, 단기 균형이 상방으로 고개를 드는 구간을 포착하는 로직을 설계합니다.

2. 구름대(Cloud): 매물대의 시각화

일목균형표의 선행스팬 1과 2 사이의 공간을 '구름대'라고 부릅니다. 이 구름은 과거에 쌓인 매수와 매도세의 흔적이며, 두께가 두꺼울수록 그만큼 강력한 저항 혹은 지지의 역할을 합니다.

- **구름대 상향 돌파:** 주가가 두꺼운 구름 아래에 있다가 위로 뚫고 올라온다는 것은, 장기간 쌓여온 매물을 모두 소화할 만큼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음을 의미합니다.
- **의미의 수치화:** 검색식에서는 '현재가가 선행스팬 1과 2보다 큼'이라는 조건을 통해 구름대 위에 안착한 종목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3. 전환선과 기준선: 추세의 나침반

일목균형표에서 전환선(9일 평균)과 기준선(26일 평균)은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와 유사한 역할을 하지만, 단순 산술 평균이 아닌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간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세의 굴곡을 더 예민하게 반영합니다.

- **호전(골든크로스):**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는 것을 '호전'이라 하며, 이는 단기적인 시세의 균형이 무너지며 상승세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 **기준선의 방향:** 특히 기준선이 우상향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호전은 추세의 신뢰도를 급격히 높여줍니다.

4. 실전 레시피: '삼역호전'의 현대적 재해석

일목균형표에서 가장 강력한 매수 신호는 주가가 구름 위에 있고, 전환선이 기준선 위에 있으며, 후행스팬이 주가 위에 있는 '삼역호전' 상태입니다. 이를 검색식으로 구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가 위치:** [일목균형표] 주가가 구름대(선행스팬 1, 2) 상향 돌파 혹은 위에 위치.
- **선 교차:** [일목균형표] 전환선이 기준선을 0봉전 상향 돌파 (혹은 유지).
- **강도 보강:** [체결강도] 120% 이상 AND [거래량비율] 전일 대비 200% 이상. 구름대라는 거대한 저항을 뚫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의 힘'이 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5. 12장을 마치며: 구름 위를 나는 매매

구름대 아래에 있는 종목은 아무리 호재가 터져도 머리 위의 매물 때문에 상승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구름 위로 올라온 종목은 탁 트인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일목균형표를 통해 시세의 '장애물'을 확인하고 그 장애물을 막 넘어선 종목을 골라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3장에서는 반대로 주가가 너무 과하게 떨어졌을 때, 공포의 끝에서 반등을 노리는 '과매도 낙주' 공략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13장. 투매의 끝을 잡는 '과매도 낙주' 반등 레시피

1. 공포의 끝에서 피어나는 기회

주식 시장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지수가 급락하거나 종목에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져 비이성적인 투매가 나올 때입니다. 초보 투자자들은 이때 패닉 셀(Panic Sell)에 동참하며 손실을 확정 짓지만, 숙련된 퀀트 트레이더들은 이를 '가격 왜곡'이 발생한 절호의 기회로 봅니다. 모든 주가는 영원히 떨어질 수 없으며, 과하게 늘어난 고무줄이 제자리로 돌아오듯 강력한 **기술적 반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3장에서는 단순히 떨어지는 종목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반등 확률이 극대화된 **'과매도(Oversold)'** 구간을 수치화하여 공포의 정점에서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설계합니다.

2. 낙주 매매의 전제 조건: "죽지 않을 종목인가?"

낙주 매매는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 전략입니다. 잘못 잡으면 '지하실'을 경험할 수 있기에, 2장과 9장에서 배운 **위험 필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재무적 생존 확인:** 자본잠식이나 영업이익 적자가 지속되는 기업은 낙주 매매 대상에서 철저히 제외합니다. 투매 이후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 **이격도의 극단화:** 주가가 이동평균선(특히 20일선)에서 멀어질수록 평균으로 회귀하려는 힘은 강해집니다. 우리는 이 '이격도'가 과거 통계상 반등이 나왔던 임계치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과매도의 수치화: RSI와 엔벨로프의 결합

컴퓨터에게 "너무 많이 빠진 종목"을 찾게 하려면 보조지표의 극단적인 수치를 이용해야 합니다.

- **RSI (상대강도지수):** 보통 RSI 30 이하를 과매도로 보지만, 투매 구간에서는 2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13장 레시피에서는 RSI(14) 기준 25~30 이하를 1차 기준으로 삼습니다.
- **엔벨로프(Envelope) 하단:** 주가의 변동 범위를 설정하는 엔벨로프의 하단선은 강력한 심리적·기술적 지지선입니다. 주가가 엔벨로프(20, 10 혹은 20, 15) 하한선을 이탈하거나 터치했을 때를 '반등 임박' 신호로 간주합니다.

4. 실전 레시피: '칼날 잡기'가 아닌 '바닥 확인'

주가가 떨어지는 칼날일 때 잡는 것보다, 하락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며 **하방 경직성**을 보일 때 진입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 **조건 1:** [RSI(14)] 30 이하 AND [주가-엔벨로프(20, 10)] 종가가 하위선 이하.
- **조건 2:** [이격도] 20일선 대비 현재가 85% 이하 (20일 평균보다 15% 이상 급락한 상태).
- **확인 매수 신호:** 분봉상에서 5선이 20선을 골든크로스 하거나, 당일 시가를 회복하는 양봉이 출현할 때 비로소 진입합니다. 이는 투매 물량을 누군가 받아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5. 13장을 마치며: 데이터로 공포를 다스려라

낙주 매매는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작업입니다. 눈앞에 파란색 음봉이 가득할 때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것은 오직 **통계적 확신**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설계한 13장의 검색식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갑게 숫자로만 시장을 바라보게 해줄 것입니다. 짧고 굵은 반등 수익을 챙겼다면 미련 없이 나오는 것이 낙주 매매의 핵심입니다. 14장에서는 반대로 시세가 이미 터진 종목이 고점에서 다시 한번 에너지를 모으는 '고가권 횡보' 패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14장. 신고가 근처 '고가권 횡보' 패턴: 깃발형과 싸기형

1. 실 줄 아는 종목이 더 멀리 간다

많은 투자자가 이미 큰 시세가 난 종목을 보며 "너무 올랐다"고 외면하거나, 반대로 무지성으로 추격 매수를 하다 고점에 물리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주도주는 한 번의 급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강력한 상승 뒤에 나타나는 ***고가권 횡보***는 세력이 물량을 던지는 과정이 아니라, 앞선 상승에서 따라붙은 개인들의 매물을 소화하고 에너지를 재충족하는 '기운 차리기' 구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14장에서는 신고가 부근에서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고 특정 형태(깃발형, 싸기형)를 그리며 버티는 종목을 포착하여, 2차 폭발의 서막을 알리는 지점을 공략하는 로직을 배웁니다.

2. 패턴의 논리: 가격은 버티고 거래량은 마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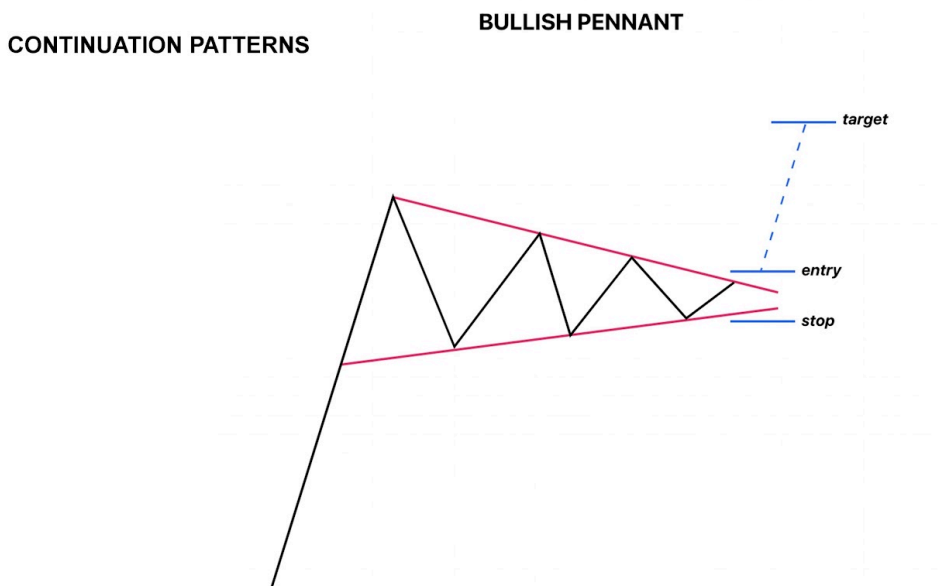
컴퓨터에게 "예쁜 횡보 패턴을 찾아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패턴의 본질적인 특징을 숫자로 치환해야 합니다.

- **가격의 하방 경직성:** 급등한 종목이 고점에서 하락하지 않고 버틴다는 것은 매수세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증거입니다. 보통 '상승폭의 30% 이내'에서 조정이 마무리되는지 확인합니다.
- **거래량의 급감 (핵심):** 횡보 구간에서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야 합니다. 이는 파는 사람이 없어졌음을 의미하며, 작은 매수세만 들어와도 다시 튀어 올라갈 준비가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 **이동평균선의 수렴:** 주가가 횡보하는 동안 단기 이동선(5일)과 중기 이동선(20일)이 맞닿으며 에너지가 응축됩니다.

3. 깃발형과 싸기형의 수치적 정의

차트상의 시각적 패턴을 검색식 논리로 변환하는 핵심 레시피입니다.

- **상승 모멘텀 확인:** [주가비교] 최근 20봉 이내에 전일 대비 15% 이상 급등한 봉이 존재할 것. (깃대의 형성)
- **변동성 축소 (스퀴즈):** [주가등락률] 최근 5봉 이내 고가와 저가의 차이가 10% 이내일 것. (깃발의 형성)
- **거래량 필터:** [거래량비율] 현재 거래량이 최근 5봉 평균 거래량의 50% 이하일 것. (매물 소화 확인)



4. 실전 타점: 2차 폭발의 '트리거'

횡보하던 종목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맥점'을 잡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 **신고가 재돌파:** [신고가] 0봉전 종가가 최근 20봉 중 최고가 돌파.
- **거래량의 부활:** 횡보하던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0% 이상 증가하며 양봉을 만들 때 진입합니다.
- **안전장치:** [체결강도] 120% 이상 조건을 결합하여 가짜 돌파를 걸러냅니다.

5. 14장을 마치며: 주도주의 2차 파동을 즐겨라

고가권 횡보 패턴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추세 추종의 정석입니다. 바닥에서 잡지 못했다고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방향성이 확실해진 뒤 2차 상승의 초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시간 대비 수익률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급등주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급등주가 쉬어가는 지점을 반기는 트레이더가 되었습니다.

15장에서는 차트를 넘어 기업의 실제 체질이 개선되는 지점을 포착하는 '실전 시즌 퀀트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15장. 실적 시즌 전용: 어닝 서프라이즈 및 턴어라운드 후보

1.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가 차트의 '형태'와 수급의 '흔적'을 쫓았다면, 15장에서는 주가의 근본적인 동력인 *****실적*****에 집중합니다. 주식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 발표인 '어닝 서프라이즈'와 적자의 늪을 벗어나 흑자로 돌아서는 '턴어라운드'입니다.

아무리 차트가 예뻐도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승은 단발성에 그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숫자로 증명된 성장은 주가의 하단을 지지하고 새로운 상승 랠리의 명분을 제공합니다. 실적 시즌마다 반복되는 이 '숫자의 마법'을 조건검색식으로 시스템화하는 법을 배웁니다.

2. 턴어라운드(Turnaround)의 논리: 최악에서 최고로

가장 극적인 주가 상승은 기업의 체질이 개선되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퀀트 투자의 관점에서 턴어라운드는 단순히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던 기업이 분기 혹은 반기 기준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한다면, 이는 시장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는 트리거가 됩니다.
- **영업이익률의 개선**: 매출액 증가보다 영업이익의 증가 폭이 더 크다는 것은 기업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재무 건전성 확보**: 부채비율이 낮아지고 자본잠식 위험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주가 상승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3. 어닝 서프라이즈의 수치화: 성장성에 베팅하라

실적 발표 당일 급등하는 종목을 잡기 위해서는 재무 데이터와 실시간 가격 데이터를 결합해야 합니다.

- **전년 동기 대비(YoY) 성장**: 최근 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종목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 **최근 3개 분기 연속 증가**: 단발성 이익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분기별 영업이익의 연속 증가 여부를 체크합니다.
- **주가와외 괴리**: 실적은 좋아졌는데 주가는 아직 바닥권에 있다면, 이는 '저평가' 상태로 판단하여 선취매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4. 실전 레시피: 실적과 차트의 골든 크로스

HTS의 [재무/성장성] 조건을 활용하여 실적주를 포착하는 핵심 로직입니다.

- **재무 필터**: [영업이익] 최근 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 AND [부채비율] 200% 이하.
- **성장성 조건**: [영업이익증가율]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혹은 [매출액증가율] 20% 이상.
- **기술적 결합**: [주가이동평균배열] 일봉상 5, 20, 60일선 정배열 초입. 실적이 발표된 직후 거래량이 터지며 정배열을 만드는 종목이 타겟입니다.
- **리스크 관리**: [시가총액] 최소 500억 이상으로 설정하여 변동성이 너무 큰 잡주는 제외합니다.

5. 15장을 마치며: 숫자를 믿고 시간을 사라

실적주 매매는 단타보다는 스윙이나 중장기 투자에 더 적합합니다. 숫자로 증명된 가치는 시장의 일시적인 흔들림에도 쉽게 꺾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차트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기업의 '진짜 실력'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15장의 검색식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든든한 주력주를 채워줄 것입니다. 16장에서는 상한가라는 강력한 신호탄 이후에 발생하는 '첫 번째 눌림'과 '갭 메우기' 전략을 통해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16장. 상한가 다음 날의 공략: '첫 놀림'과 '갭 메우기'

1. 상한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주식 시장에서 상한가는 해당 종목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의 분출입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가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을 보며 "이미 기차는 떠났다"고 포기하지만, 프로 트레이더들은 상한가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사냥을 시작합니다. 상한가를 만든 주체는 엄청난 자금을 투입했기에, 단 하루 만에 물량을 털고 나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16장에서는 상한가 이후 발생하는 일시적인 조정 구간인 *****첫 놀림*****과 시가 갭을 메우러 내려오는 구간을 포착하여, 가장 안전하면서도 탄력적인 반등 수익을 거두는 로직을 설계합니다.

2. 패턴의 논리: 강한 놈은 죽지 않는다

상한가 다음 날의 공략 핵심은 '상승의 의지'가 훼손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 **거래량의 법칙:** 상한가 당일 터진 역대급 거래량에 비해, 다음 날 조정 시 거래량은 현저히 줄어들어야 합니다. 이는 세력이 이탈하지 않고 개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만 나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 **가격 지지의 원리:** 상한가 봉의 종가나 몸통의 중간선(50% 지점)을 깨지 않고 버틴다면, 이는 2차 상승을 위한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갭 메우기(Gap Fill):** 시가가 높게 형성된 후 전일 종가 부근까지 내려오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매물 소화 과정입니다. 이 지점이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3. 실전 레시피: 반등의 '맥점'을 찾는 검색식

컴퓨터에게 상한가 이후의 놀림목을 찾게 하는 구체적인 조건 조합입니다.

- **상한가 이력 확인:** [주가등락률] 1봉전(어제) 종가가 15% 이상(혹은 상한가) 상승했을 것.
- **거래량 급감:** [거래량비율] 0봉전(오늘) 거래량이 1봉전 거래량의 50% 이하일 것.
- **지점 포착:** [주가비교] 0봉전 저가가 1봉전 종가의 -3% ~ +1% 범위 내에 위치할 것. (전일 상한가 종가 부근 지지 확인).
- **분봉상 신호:** 3분봉 혹은 5분봉에서 5선이 20선을 골든크로스 하며 당일 시가를 회복할 때 진입합니다.

4. 주의사항: '진짜 놀림'과 '가짜 놀림'의 구별

모든 상한가 종목이 다음 날 반등하지는 않습니다. 위험을 피하기 위해 다음 조건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 **체결강도 체크:** 주가는 놀리고 있지만 [체결강도]가 100% 이상을 유지한다면 매수세가 살아있는 것으로 봅니다.
- **섹터의 대장주:** 같은 테마 내에서 가장 먼저 상한가에 들어갔던 '대장주'만을 공략 대상으로 삼습니다. 2등주나 3등주는 놀림 이후 반등의 탄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5. 16장을 마치며: 칼날 위를 걷는 정교함

상한가 다음 날 매매는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16장에서 배운 논리를 통해 '기준점'을 확실히 잡는다면, 어떤 매매보다 빠르고 강력한 수익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시장의 가장 뜨거운 종목을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17장에서는 주도주들의 호가창 이면에 숨겨진 '매수 잔량'의 불균형을 분석하여 세력의 매집 의도를 읽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17장. 거래대금 상위주 내에서의 '매수 잔량' 불균형 전략

1. 호가창에 숨겨진 세력의 심리 읽기

주식 시장의 초보 투자자들은 매수 호가에 물량이 쌓여 있으면 든든하다고 느끼고, 매도 호가에 큰 물량이 있으면 주가가 오르지 못할 것이라며 겁을 먹습니다. 하지만 실전 트레이딩의 세계는 정반대의 논리가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진짜 세력은 자신이 사고 싶을 때 매도 호가에 큰 물량을 쌓아 개인들이 위로 사게 만들거나, 매수 호가를 비워두어 주가가 가볍게 위로 튀게 만듭니다.

17장에서는 시장의 돈이 쏠리는 거래대금 상위주를 대상으로, 호가창의 '매수 잔량'과 '매도 잔량'의 불균형을 수치화하여 세력이 개인들을 속이며 물량을 매집하는 구간을 포착하는 로직을 설계합니다.

2. 허매도와 매수 잔량 불균형의 원리

우리가 주목해야 할 현상은 매도 잔량이 매수 잔량보다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지 않고 지지받는 상태입니다.

- **매도 잔량 > 매수 잔량 (역설적 상승):** 매도벽이 두껍다는 것은 주가를 누르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매도 물량을 누군가 계속해서 '먹어치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강력한 매수 주체가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 **체결강도의 뒷받침:** 단순히 잔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체결되는 힘이 매도세보다 강한지(체결강도 100% 이상)를 반드시 병행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거래대금의 문턱:** 호가창의 논리는 거래가 활발한 종목에서만 유효합니다. 거래량이 없는 종목에서의 잔량은 허수인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거래대금 상위' 필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3. 실전 레시피: '허매도 패턴'을 포착하는 공식

호가창의 실시간 데이터를 검색식 논리로 치환하는 핵심 구성입니다.

- **시장 주도주 한정:** [거래대금] 당일 거래대금 상위 100위 이내 혹은 최근 5분 거래대금 50억 이상.
- **잔량비율 설정:** [매도매수잔량비] 매도 잔량이 매수 잔량의 200% 이상(혹은 300% 이상)일 것. 이는 시각적으로 매도벽이 매우 두꺼워 보이는 상태입니다.
- **가격 지지 확인:** [주가비교] 현재가가 당일 시가보다 높거나, 최근 5분봉의 시가보다 위에 위치할 것.
- **수급의 증명:** [체결강도] 120% 이상. 매도벽이 두껍지만 사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을 수치로 증명하는 순간입니다.

4. 주의사항: '진짜 하락'과의 한 끝 차이

매도 잔량이 많다고 무조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징후가 보이면 즉시 제외해야 합니다.

- **주가의 흘러내림:** 매도 잔량이 많은데 주가가 저점을 낮추며 흘러내린다면, 그것은 실제 투매 물량이 쏟아지는 위험 신호입니다.
- **순간적인 잔량 변화:** 세력이 주문을 취소하여 잔량 비율이 급격히 변할 때는 진입을 자제하고 흐름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5. 17장을 마치며: 보이는 것 너머의 진실을 믿어라

호가창 매매는 직관과 데이터의 싸움입니다. 17장에서 배운 불균형 전략은 대중의 공포(두꺼운 매도벽)를 수익의 기회로 바꾸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차트와 재무를 넘어 실시간 돈의 흐름까지 읽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18장에서는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 진정한 강함을 드러내는 '지수 대비 강한 종목' 포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18장. 지수 대비 강한 종목: '상대적 강도(RS)' 검색법

1. 하락장에서 진주를 찾는 법

주식 시장의 격언 중 "지수 이기는 종목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2~3%씩 급락할 때 대부분의 종목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함께 추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도 기어코 빨간 불을 켜거나, 지수보다 훨씬 적게 밀리며 곳곳이 버티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상대적 강도(Relative Strength)****가 높은 종목이라고 부릅니다.

18장에서는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종목들을 포착하는 법을 배웁니다. 지수가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는 순간, 가장 먼저 전고점을 돌파하며 '대장주'로 치고 나갈 후보들을 미리 선점하는 전략입니다.

2. 상대적 강도의 논리: 숨겨진 매수세의 증거

지수가 하락하는데 종목이 버틴다는 것은 누군가 쏟아지는 매물을 밑에서 다 받아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 **지수와의 비교:** 코스닥 지수가 -2% 하락할 때, 어떤 종목이 보합(0%)을 유지한다면 이 종목은 지수 대비 +2%의 초과 수익을 내고 있는 셈입니다.
- **저점의 상승:** 지수는 저점을 낮추며 하락하고 있는데, 종목은 저점을 높이거나 수평을 유지한다면 이는 전형적인 '매집'의 신호입니다.
- **회복 탄력성:** 지수가 살짝 반등할 때 지수보다 몇 배나 빠르게 튀어 오르는 종목은 시장의 모든 대기 매수세가 주목하고 있는 '준비된 주도주'입니다.

3. 실전 레시피: '시장 이기는 종목'을 추출하는 공식

단순히 등락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수의 움직임과 연동하여 로직을 구성해야 합니다.

- **기간 내 수익률 비교:** [주가등락률] 최근 5봉(일주일) 동안 코스닥 지수 등락률보다 해당 종목의 등락률이 상위 10% 이내일 것.
- **이평선 정배열 유지:** 지수는 20일선 아래로 깨고 내려갔으나, 종목은 [주가이동평균배열] 5>20>60 상태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을 것.
- **수급의 뒷받침:** [순매수] 지수가 하락하는 동안 외국인이나 기관의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된 종목. (거인의 방어 확인)
- **거래량 필터:** [거래량비율] 지수 하락 시 거래량이 급감하며 버티다가, 지수 반등 시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0% 이상 실리는 종목.

4. 하락장 스캔의 묘미: '포스트 주도주' 선점

이 검색식은 상승장보다는 **하락장이나 조정장**에서 빛을 발합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이 검색기에 포착되는 5~10개의 종목이 바로 다음 상승 사이클의 주인공이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 **섹터의 집중도:** 검색된 종목들이 특정 섹터(예: 반도체, 바이오)에 몰려 있다면, 시장은 이미 다음 주도 테마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 **전고점과의 거리:** 지수 대비 강하면서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은 지수 반등 시 가장 먼저 상한가에 도전할 가능성이 큼니다.

5. 18장을 마치며: 파도가 쓸려나가야 보석이 보인다

강세장에서는 누구나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진짜 실력은 약세장에서 드러납니다. 18장에서 설계한 RS 검색기는 여러분이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강한 놈'을 골라낼 수 있는 혜안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거시적인 시장 흐름과 개별 종목의 강함을 연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9장에서는 하루의 매매를 마무리하며 다음 날의 시세 갭을 노리는 '장 마감 전 종가 매수(종베)' 레시피를 알아보겠습니다.

제19장. 장 마감 전 종가 매수(종베) 레시피: 다음 날의 '갭'을 선점하라

1. 하루의 결론에 투자하는 지혜

데이 트레이딩이 장종의 변동성을 먹는 싸움이라면, **종가 매수(종베)**는 하루 동안의 치열한 공방 끝에 도출된 '최종 결론'에 올라타는 전략입니다. 장 마감 직전인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20분 사이에는 당일의 주도주들이 내일의 추가 상승을 위해 마지막 스퍼트를 올리거나, 안정적인 종가 형성을 위해 수급이 집중됩니다.

19장에서는 당일 양봉의 몸통을 꽉 채우며 마감하는 종목을 포착하여, 다음 날 아침 시가 갭(Gap) 상승 수익을 노리는 실전 종베 레시피를 설계합니다.

2. 종가 매수의 논리: '종가 고가'의 힘

컴퓨터에게 "내일 오를 종목을 미리 사줘"라고 할 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는 당일 종가의 위치입니다.

- **종가 고가 패턴:** 장 막판까지 매수세가 유입되어 당일의 고가 근처에서 마감한다는 것은, 아직 사지 못한 대기 매수세가 줄을 서 있다는 뜻입니다.
- **거래량의 뒷받침:** 오후 들어 거래량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아침 고점 돌파 때만큼 터져준다면, 이는 내일로 시세를 연장하겠다는 세력의 의지입니다.
- **매물대 돌파와 안착:** 일봉상 중요한 저항선이나 전고점을 종가로 확실히 뚫어낸 상태라면 다음 날 추가 상승 확률은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3. 실전 레시피: '오후장 주도주' 추출 공식

장 마감 30분 전,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종목이 타겟입니다.

- **가격 조건:** [주가비교] 0봉전 종가가 0봉전 시가보다 5% 이상 높을 것 (강한 양봉 유지).
- **고가 근처 마감:** [주가위치] 당일 고가 대비 현재가 하락률이 1% 이내일 것.
- **수급 집중:** [거래량비율] 최근 5분 거래량이 당일 평균 5분 거래량의 300% 이상일 것.
- **기술적 지표:** [체결강도] 120% 이상 유지.

4. 필터링: 자고 일어났을 때 '파란 불'을 피하는 법

종베는 오버나이트(Overnight) 리스크를 동반하므로 깐깐한 필터가 필수입니다.

- **과열 종목 제외:** [이격도] 20일선 대비 120% 이상 벌어진 종목은 단기 차익 매물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제외합니다.
- **상단 저항 확인:** 바로 위에 강력한 장기 이평선(240일선 등)이 버티고 있다면 갭 상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시간외 단일가 확인:** 매수 후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5. 19장을 마치며: 시간의 가치를 수익으로 바꾸다

종가 매수는 직장인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전략입니다. 장종 내내 차트를 볼 필요 없이, 마감 직전 10분의 집중력만으로도 다음 날 아침의 기쁨을 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루의 시작(3장)부터 끝(19장)까지 모든 시계열을 아우르는 검색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20장에서는 퀀트 투자의 기초이자 저평가 우량주 발굴의 정석인 '마법의 공식' 검색식을 통해 투자 범위를 넓혀보겠습니다.

제20장. 저평가 우량주의 공식: '마법의 공식' 검색식

1. 감정을 배제한 숫자의 승리

지금까지 우리가 차트의 '형태'와 실시간 '수급'에 집중했다면, 20장부터는 주식 투자의 본질인 *****기업의 가치*****를 숫자로 환산하는 법을 배웁니다. 세계적인 펀드매니저 조엘 그린블라트가 고안한 '마법의 공식'은 아주 단순한 논리에서 출발합니다. "좋은 기업(수익성이 높은 기업)을 싼 가격(저평가된 기업)에 사라"는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가 우량주를 비싸게 사거나, 잡주를 싸게 사서 실패할 때, 퀀트 트레이더는 오직 통계적으로 증명된 데이터를 믿습니다. 20장에서는 이 마법의 공식을 한국 시장에 맞게 검색식으로 구현하여, 장기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압도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법을 다룹니다.

2. 두 가지 핵심 엔진: ROC와 이익수익률

마법의 공식은 복잡한 분석 대신 두 가지 핵심 지표의 순위를 매겨 합산합니다.

- **자본수익률(ROC, Return on Capital):** 기업이 가진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돈을 벌었는지를 나타냅니다. '돈을 잘 버는 좋은 기업'을 골라내는 기준입니다.
- **이익수익률(Earnings Yield):** 기업의 내재 가치 대비 현재 주가가 얼마나 싼지를 나타냅니다. PER(주가수익비율)의 역수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싸게 거래되는 기업'을 찾는 기준입니다.

3. 한국형 마법의 공식 수치화

HTS의 조건검색식 기능을 활용해 실적 우량주를 필터링하는 단계별 설계입니다.

- **재무 건전성 필터:** 9장에서 배운 대로 자본잠식이나 영업이익 적자 종목은 원천 배제합니다.
- **수익성 설정:** [ROE/ROA] 혹은 [영업이익률] 상위 20% 이내. (그린블라트의 ROC를 대체하는 지표로 활용 가능합니다.)
- **저평가 설정:** [PER] 2배 이상 10배 이하 혹은 [PBR] 0.2배 이상 1배 이하. 지나치게 낮은 PER은 일시적 이익일 수 있으므로 하한선을 둡니다.
- **시가총액 규모:** 너무 작은 종목은 유동성 리스크가 있으므로 시가총액 최소 500억~1,000억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4. 실전 레시피: '전교 1등' 종목 발굴하기

단순히 지표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표를 동시에 만족하는 종목을 찾는 것이 퀀트 검색식의 핵심입니다.

- **조건 A:** [PER] 최근 결산 기준 3배 이상 8배 이하.
- **조건 B:** [PBR] 최근 결산 기준 0.3배 이상 0.8배 이하.
- **조건 C:** [ROE] 최근 3개년 평균 10% 이상 유지.
- **조건 D:** [부채비율] 150% 이하.

이 네 가지 조건을 AND로 묶으면, 돈은 잘 벌면서 빚은 적고, 시장에서 현저히 저평가된 알짜 종목들이 리스트에 오르게 됩니다.

5. 20장을 마치며: 인내하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

마법의 공식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들은 대개 차트가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닥에서 지루하게 기어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퀀트 투자는 차트의 파동이 아니라 '숫자의 회귀'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차트 밖의 영역인 '가치'를 시스템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21장에서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9가지 항목으로 간간하게 체크하는 'F-Score(피오토로스키) 필터'를 통해 종목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여보겠습니다.

제21장. F-Score(피오토로스키) 필터: 기업의 건강검진

1. 차트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실

주식 시장에는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속은 굼아 터진 '부실 기업'들이 수도룩합니다. 20장에서 배운 저평가 우량주를 찾았다 하더라도, 그 기업이 실제로 좋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망해가고 있어서 주가가 싼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조셉 피오토로스키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9가지 재무 지표를 점수화한 ****F-Score****를 고안했습니다.

21장에서는 단순히 "싸다"는 이유만으로 매수하는 함정에서 벗어나, 기업의 수익성, 안전성, 효율성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지를 9점 만점의 점수로 확인하는 **'재무 건강검진'** 로직을 설계합니다.

2. 9가지 체크리스트: 수익성, 안전성, 효율성

피오토로스키 점수는 기업의 상태를 세 가지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합니다.

- **수익성 (4점):** 당기순이익이 플러스인가? 영업현금흐름이 플러스인가? 전년 대비 ROA가 개선되었는가? 현금흐름이 순이익보다 큰가?
- **안전성 (3점):** 전년 대비 부채비율이 감소했는가? 유동비율이 증가했는가? 신주 발행(증자)을 하지 않았는가?
- **효율성 (2점):** 전년 대비 매출총이익률이 향상되었는가? 자산회전율이 좋아졌는가?

이 9가지 항목 중 만족하는 항목당 1점을 부여합니다. 8~9점은 '우수', 0~2점은 '위험'으로 간주합니다.

3. 실전 레시피: 퀀트 필터의 결합

HTS의 조건검색식에서 9가지 항목을 모두 일일이 넣기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핵심적인 3~4가지 조건으로 압축하여 '고득점 후보군'을 추출합니다.

- **수익성 필터:** [영업이익] 최근 3사업연도 연속 흑자 AND [당기순이익] 전년 동기 대비 증가.
- **재무 건전성:** [부채비율] 100% 이하 혹은 전년 대비 감소.
- **현금 흐름:** [영업활동현금흐름] 양수(+) 유지. 이는 장부상 이익이 아닌 실제 현금이 들어오고 있음을 뜻합니다.
- **자산 효율성:** [매출총이익률] 전년 대비 증가. 기업의 본업 경쟁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4. 검색식의 응용: '가짜 우량주' 걸러내기

이 필터는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 20장의 '마법의 공식'이나 8장의 '스윙 검색식'과 결합할 때 가장 강력합니다.

- **결합 전략:** 저PBR 종목 중 F-Score가 7점 이상인 종목만 추출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산 가치만 있는 종목이 아니라, '돈도 잘 벌고 재무도 개선되는 진짜 저평가주'를 찾는 작업입니다.
- **리스크 방어:** 9장에서 배운 '위험 필터'를 기본으로 깔고, 이 F-Score 조건을 추가하면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같은 최악의 상황을 99% 확률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5. 21장을 마치며: 잃지 않는 투자의 시작

피오토로스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저PBR 종목군 중 F-Score가 높은 종목들에 투자했을 때 시장 수익률을 연평균 7% 이상 앞섰다고 합니다. 수익을 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망하지 않을 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기업의 내실을 숫자로 검증하는 엄격한 심사위원이 되었습니다. 22장에서는 다시 시장의 뜨거운 흐름으로 돌아와, 최근 가장 잘 나가는 종목들의 순위를 매겨 올라타는 '모멘텀 전략'의 수치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22장. 모멘텀 전략의 수치화: '상대강도' 지표 활용

1. 달리는 말은 멈추지 않는다

주식 시장에서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강력한 전략 중 하나는 **모멘텀(Momentum)** 투자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는 가치 투자의 격언과 달리, 모멘텀 투자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라"는 논리를 따릅니다. 오르는 주식이 더 오르는 이유는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미처 타지 못한 대기 매수세가 끊임없이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22장에서는 단순히 "많이 올랐다"는 느낌이 아니라, 전체 상장 종목 중에서 최근 수익률이 가장 우수한 종목들을 통계적으로 순위 매기는 '**상대강도(Relative Strength)**' 전략을 수치화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주인공인 주도주 섹터를 가장 먼저 포착하는 법을 배웁니다.

2. 모멘텀의 논리: 추세의 지속성과 가속도

모멘텀 전략의 핵심은 '추세의 강화'입니다.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하거나 신고가 영역에 진입하면 위로 매물이 없어 가볍게 날아가는 성질을 이용합니다.

- **수익률 순위(Ranking):** 최근 3개월 혹은 6개월간의 수익률을 계산하여 전체 종목 중 상위 10~20% 내에 드는 종목을 고릅니다.
- **추세의 정배열:** 8장에서 배운 대로 5일, 20일, 60일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상태를 유지하며 우상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 **놀림목과의 조화:** 무작정 추격 매수하기보다,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이 5일선이나 10일선까지 잠시 눌리는 구간을 타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3. 실전 레시피: '상대강도 상위주' 추출 공식

HTS의 등락률 순위와 기술적 지표를 결합하여 강력한 모멘텀주를 골라내는 설계입니다.

- **기간 수익률 설정:** [주가등락률] 최근 60봉(약 3개월) 이내 최고등락률 20% 이상 혹은 전체 종목 중 수익률 상위 50위 이내.
- **추세 확인:** [주가이동평균배열] \$5 > 20 > 60 > 120\$ 정배열 유지.
- **신고가 근접:** [신고가] 0봉전 종가가 최근 250봉(1년) 최고가의 90% 이상 지점에 위치.
- **거래대금 필터:** 시장의 주도주여야 하므로 [거래대금] 당일 500억 이상 혹은 최근 5일 평균 200억 이상 조건을 추가합니다.

4. 위험 관리: 모멘텀의 끝 '절벽' 피하기

모멘텀 투자의 가장 큰 위험은 추세가 꺾일 때 발생하는 급락입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한 퀀트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이격도 제한:** [이격도] 20일선 대비 현재가 115% 이상일 경우 과열로 판단하여 신규 진입을 자제합니다.
- **손절선 자동화:** 5일선이나 10일선을 종가로 이탈할 경우 미련 없이 수익을 확정 짓는 '트레이링 스탱' 원칙을 고수해야 합니다.
- **하락 전환 감지:** [체결강도]가 100% 미만으로 떨어지며 음봉이 발생하면 모멘텀의 소멸 신호로 간주합니다.

5. 22장을 마치며: 파도 위를 걷는 트레이더

모멘텀 투자는 시장의 가장 뜨거운 에너지를 이용하는 전략입니다. 22장의 검색식은 여러분을 지루한 종목에서 건져내어 항상 시장의 중심에 서게 해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데이터로 무장한 '추세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23장에서는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고배당주 및 배당성장주' 포트폴리오 설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23장. 고배당주 + 배당성장주 포트폴리오 설계

1. 변동성 장세의 든든한 버팀목, 배당

주식 투자에서 수익은 크게 주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Capital Gain)과 기업의 이익을 나누는 배당 수익(Dividend Yield)으로 나뉩니다. 상승장에서는 시세 차익이 달콤하지만, 지수가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조정장에서는 따박따박 들어오는 배당금이 계좌의 방어력을 결정합니다. 특히 최근처럼 금리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실물 자산과 현금 흐름을 동시에 가진 고배당주가 매력적인 대안이 됩니다.

23장에서는 단순히 배당률만 높은 '함정 카드'를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배당금을 늘려가는 *****배당성장주*****와 결합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는 퀀트 포트폴리오 설계법을 다룹니다.

2. 배당 투자의 논리: '배당 수익률'과 '배당 성향'

컴퓨터에게 "좋은 배당주를 찾아줘"라고 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지표들이 있습니다.

- **배당 수익률(Dividend Yield):** 현재 주가 대비 배당금의 비율입니다. 보통 시중 금리보다 높은 4~7% 이상의 종목을 타겟으로 합니다.
- **배당 성향(Payout Ratio):** 벌어들인 이익 중 얼마를 배당으로 주는가입니다. 너무 높으면(예: 90% 이상)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가 부족하거나 배당 삭감의 위험이 있고, 너무 낮으면 주주 환원에 인색한 기업입니다.
- **배당 성장성:** 지난 3~5년간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왔는지는 기업의 이익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3. 실전 레시피: '현금 부자' 기업 추출 공식

HTS의 배당 관련 데이터와 재무 필터를 결합하여 알짜 배당주를 포착하는 로직입니다.

- **수익성 필터:** [영업이익] 최근 3개년 연속 흑자 유지. (배당의 원천은 이익입니다.)
- **배당률 설정:** [배당수익률] 최근 결산 기준 4% 이상 혹은 상위 10% 이내.
- **성장성 조건:** [배당성장률] 최근 3년간 연평균 배당금이 줄어들지 않고 증가했을 것.
- **안전장치:** [유보율] 500% 이상 혹은 [현금흐름]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양수(+)일 것. 곳곳에 현금이 쌓여 있어야 배당이 지속 가능합니다.

4. 배당주의 기술적 타점: '찬바람 불 때'의 역발상

배당주는 계절성이 강합니다. 보통 연말 배당을 노린 수급이 가을부터 유입되므로, 차트상에서 저점을 높이는 구간을 포착해야 합니다.

- **이평선 지지:** [가격-이동평균비교] 주가가 120일 혹은 240일 장기 이평선 근처에서 지지받으며 횡보하는 종목.
- **이격도 활용:** 배당주의 특성상 주가가 급등하면 배당 수익률이 낮아지므로, [이격도] 20일선 대비 100~103% 내외의 '조용한' 구간에서 매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23장을 마치며: 복리의 마법을 실현하라

배당 투자는 서두르지 않는 투자입니다. 받은 배당금을 다시 해당 종목에 재투자할 때 발생하는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흐를수록 기하급수적인 자산 증식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락장에서도 웃을 수 있는 '현금 흐름'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4장에서는 기업의 자산 대비 이익 창출 능력을 가장 날카롭게 분석하는 퀀트 지표인 'GP/A(매출총이익/총자산)'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24장. 가치 투자의 핵심: GP/A 전략

1. 진짜 '돈 잘 버는' 기업을 찾아라

지금까지 우리는 PER이나 PBR 같은 '가격' 지표와 ROE 같은 '수익성' 지표를 주로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ROE(자기자본이익률)는 부채를 많이 끌어다 쓰면 수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로버트 노비-마크스 교수가 제안한 지표가 바로 ****GP/A(매출총이익/총자산)****입니다. 이 지표는 기업이 가진 '모든 자산'을 활용해 '본업'에서 얼마나 순수한 이익을 남겼는지를 측정합니다.

24장에서는 화장기 섞인 회계 수치를 걷어내고, 기업의 근본적인 비즈니스 경쟁력을 가장 날카롭게 분석하는 GP/A 퀀트 전략을 검색식으로 구현해 봅니다.

2. GP/A의 논리: 효율성의 극대화

GP/A는 기업의 '덩치(총자산)' 대비 '실속(매출총이익)'을 보는 지표입니다.

- **매출총이익의 중요성:**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일회성 비용이나 회계적 기교로 조작하기 쉽지만, 매출에서 원가를 뺀 매출총이익은 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 **자산의 효율성:** 공장, 설비, 현금 등 기업이 보유한 모든 자산을 투입했을 때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지를 나타냅니다.
- **우량주의 징표:** GP/A가 높은 기업은 대개 강력한 해자(Moat)를 가지고 있으며, 하락장에서도 주가 회복 탄력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3. 실전 레시피: '알짜배기' 기업 추출 공식

HTS에서 GP/A를 직접 제공하지 않는 경우, 유사한 성격의 지표 조합을 통해 우량 기업을 스캔합니다.

- **수익성 설정:** [매출총이익률] 상위 20% 이내 AND [총자산회전율] 1회전 이상. (자산 대비 매출이 활발히 일어나는지 확인합니다.)
- **자본 구조 확인:** [부채비율] 150% 이하. (GP/A가 높더라도 부채가 너무 많으면 리스크가 큼니다.)
- **저평가 결합:** [PBR] 0.2배 이상 1.5배 이하. (수익성은 높는데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된 구간을 노립니다.)
- **현금 흐름:**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순이익보다 클 것. (가짜 이익을 걸러내는 장치입니다.)

4. 전략의 확장: '고GP/A + 저PBR'의 마법

GP/A 전략의 진가는 가치 지표인 PBR과 결합했을 때 나타납니다. 수익성이 극도로 높는데(고GP/A) 시장에서는 자산 가치보다 낮게 대접받는(저PBR) 종목은 통계적으로 장기 우상향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리밸런싱:** 퀀트 전략의 특성상 분기별 실적 발표 직후 검색기를 돌려 종목을 교체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기술적 필터:** [주가이동평균배열] 20일선이 60일선 위에 있는 정배열 상태의 종목을 골라 진입 시점을 조율합니다.

5. 24장을 마치며: 본질에 투자하는 즐거움

차트의 파동은 매일 변하지만, 기업이 가진 본연의 효율성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24장의 검색식은 여러분에게 단기적인 소음에서 벗어나 기업의 '진짜 실력'에 투자하는 평온함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가치 투자의 가장 세련된 도구를 손에 넣었습니다. 25장에서는 전설적인 트레이더 래리 윌리엄스의 기법을 시스템화한 '변동성 돌파 전략(VBD)'을 통해 단기 추세의 폭발력을 이용하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제25장. 변동성 돌파 전략(VBD)의 시스템화

1. 전설적인 트레이더의 무기, 변동성 돌파

세계적인 트레이더 래리 윌리엄스는 1만 달러를 1년 만에 110만 달러로 불린 신화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사용한 핵심 전략이 바로 ****변동성 돌파 전략(Volatility Breakout Strategy)****입니다. 이 전략의 철학은 단순합니다. "전일 가격 변동폭의 일정 수준을 돌파하는 강한 흐름이 나오면, 그 방향으로 추세가 지속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25장에서는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철저히 수치화된 '돌파 가격'을 계산하여 기계적으로 진입하는 시스템 매매의 논리를 검색식으로 구현해 봅니다.

2. VBD의 논리: K-값(K-Value)의 마법

변동성 돌파 전략의 핵심은 당일의 '매수 타점'을 미리 계산해 두는 데 있습니다.

- **변동폭 계산:** 전일의 고가에서 저가를 뺀 수치를 '변동폭'으로 정의합니다.
- **돌파 기준 설정:** 당일 시가에 (전일 변동폭 \times K)를 더한 가격을 돌파하면 매수합니다.
- **K-값의 의미:** 보통 0.5를 표준으로 사용하며, 이는 전일 변동성의 절반 이상을 치고 올라가는 강한 에너지를 확인하겠다는 뜻입니다.
- **시간의 제한:** 이 전략은 대개 '당일 매수, 당일 매도(종가)'를 원칙으로 하여 오버나이트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3. 실전 레시피: '폭발적 추세' 추출 공식

HTS에서 실시간으로 변동성 돌파가 일어나는 종목을 포착하는 설계입니다.

- **기본 필터:** [거래대금] 당일 100억 이상 혹은 최근 5봉 평균 50억 이상으로 시장의 관심을 받는 종목을 고릅니다.
- **돌파 가격 설정:** [주가비교] 현재가 > (금일 시가 + (1봉전 고가 - 1봉전 저가) \times 0.5).
- **수급의 증명:** [체결강도] 120% 이상 AND [거래량비율] 0봉전 거래량이 1봉전 거래량 대비 200% 이상.
- **가격 위치:** [주가등락률] 당일 시가 대비 3% 이상 상승 중인 양봉 상태여야 합니다.

4. 전략의 보완: 노이즈(Noise) 필터링

단순 돌파만으로는 '가짜 돌파'에 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한 추가 쿼트 장치입니다.

- **이동평균선 필터:** 주가가 최소한 [주가이동평균배열] 5일선 위에 있거나 20일선 위에 있을 때만 진입합니다.
- **상태 필터:** [볼린저밴드] 밴드의 폭이 11장에서 배운 것처럼 좁아졌다가 확산되는 시점이면 신뢰도가 극대화됩니다.

5. 25장을 마치며: 기계가 되어 실행하라

변동성 돌파 전략은 인간의 공포와 탐욕을 이기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정해진 수치를 돌파하면 사고, 장이 끝나면 판다는 단순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이 전략의 전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전설적인 트레이더의 무기를 현대적인 검색식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26장에서는 거대 자금의 주인인 기관과 외국인의 '매집 원가'를 역추적하여 그들과 같은 선상에서 싸우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26장. 기관/외인 '매집 원가' 추정 퀀트: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는 법

1. 세력의 본전은 어디인가?

주식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매수 주체인 외국인과 기관도 결국 '수익'을 내기 위해 들어온 투자자입니다. 그들이 수백억, 수천억의 자금을 투입할 때는 일정한 기간 공들여 물량을 매집하며,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평균 매입 단가*****가 형성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매집 원가를 정확히 추정할 수 있다면, 세력과 가장 유사한 가격대에서 진입하거나 그들이 본전을 지키기 위해 방어하는 구간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26장에서는 특정 기간의 수급 데이터를 기반으로 메이저 세력의 원가를 산출하고, 현재 주가가 그 원가 근처에서 지지받거나 막 돌파하는 '맥점'을 찾는 퀀트 로직을 설계합니다.

2. 매집 원가 추정의 논리: 수급과 가격의 상관관계

세력의 원가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순매수 수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래대금'과 '기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기간 설정의 중요성:** 세력이 매집을 시작한 기점을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통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한 날이나, 장기 이평선을 돌파한 날부터 현재까지를 매집 기간으로 설정합니다.
- **평균 단가 계산:** (특정 기간 외국인·기관의 순매수 대금 / 순매수 수량) 공식을 통해 그들의 대략적인 평단을 도출합니다.
- **원가 돌파의 의미:** 주가가 세력의 평단 아래에 있다가 이를 강하게 돌파한다는 것은, 이제 세력이 '수익 구간'으로 진입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3. 실전 레시피: '메이저 평단' 추적 공식

HTS의 수급 데이터와 가격 지표를 결합하여 세력의 원가 근처에 있는 종목을 발굴합니다.

- **수급 강도 설정:** [순매수] 최근 20일(혹은 60일) 합계 외국인 또는 기관 순매수 10만 주 이상.
- **원가 근처 포착:** [주가비교] 현재가 > 외국인(혹은 기관) 평균 매입 단가 AND 현재가 < (평균 매입 단가 \times \$1.05). 세력 평단 대비 5% 이내의 안전 구간을 공략합니다.
- **기술적 지지:** [가격-이동평균비교] 20일선이나 60일선이 세력의 평단과 일치하며 지지받는 종목.
- **추세 확인:** [주가이동평균배열] \$5 > 20 > 60\$ 정배열 상태 유지.

4. 전략의 응용: '방어선'을 이용한 저점 매수

세력은 자신의 평단이 위협받으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주가를 방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원가 놀림목:** 주가가 상승 후 조정받을 때, 앞서 계산한 세력의 평단 근처에서 하락을 멈추고 양봉이 발생한다면 매우 강력한 매수 신호입니다.
- **체결강도 확인:** 원가 근처에서 [체결강도]가 120% 이상으로 치솟는다면 세력이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다라는 증거입니다.

5. 26장을 마치며: 거인과 함께 걷는 매매

세력의 원가를 알고 매매하는 것은 상대의 패를 슬쩍 보면서 게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26장의 검색식은 여러분이 세력에게 물량을 떠넘겨 받는 희생양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수익을 향유하는 파트너가 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수급의 질을 넘어 '가격의 본질'까지 꿰뚫어 보게 되었습니다. 27장에서는 대형주보다 탄력이 좋고 초과 수익의 기회가 많은 '소형주 효과' 극대화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27장. 소형주 효과(Small-cap Effect) 극대화 전략

1. 거인이 보지 못하는 틈새시장의 기회

주식 시장의 거물인 기관과 외국인도 거대한 자금 규모 때문에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을 마음대로 사지 못합니다. 그들이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대형주에 집중할 때, 시장의 한편에서는 시가총액은 작지만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알짜 기업들이 방치되곤 합니다. 학계에서는 이를 *****소형주 효과(Small-cap Effect)*****라고 부르며, 중소형주가 장기적으로 대형주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입증해 왔습니다.

27장에서는 변동성은 크지만 상승 탄력이 압도적인 시가총액 하위 종목군 중에서, 세력의 장난질에 휘둘리는 '잡주'가 아닌 '진짜 성장주'를 골라내는 퀀트 로직을 설계합니다.

2. 소형주 투자의 논리: 리스크를 거르고 수익을 취하라

소형주 투자의 가장 큰 적은 상장폐지나 거래정지 같은 재무적 리스크입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21장에서 배운 건강검진 필터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 **시가총액의 범위:** 너무 작으면 작전 세력의 놀이터가 되기 쉽습니다. 보통 시가총액 500억에서 2,000억 사이의 종목을 타겟으로 설정하여 '성장성'과 '안전성'의 균형을 맞춥니다.
- **재무적 완충 지대:** 자본잠식률 0% 미만, 부채비율 150% 이하 조건을 통해 부실 기업을 원천 봉쇄합니다.
- **유동성 확인:** 소형주는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5일 평균 거래대금 20억 이상' 조건을 넣어 최소한의 환금성을 확보합니다.

3. 실전 레시피: '작지만 강한' 종목 추출 공식

저평가된 소형주 중에서도 추세가 막 시작되는 종목을 찾는 설계입니다.

- **규모 설정:** [시가총액] 500억 이상 2,000억 이하.
- **수익성 지표:** [영업이익] 최근 3개 분기 연속 흑자 유지.
- **저평가 설정:** [PBR] 0.2배 이상 1배 이하.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을 우선합니다.)
- **기술적 트리거:** [주가이동평균배열] $\$5 > 20 > 60\$$ 정배열 초입.
- **수급 확인:** [거래량비율] 전일 대비 200% 이상 혹은 [체결강도] 120% 이상.

4. 전략의 핵심: '소형주 + 고GP/A'의 결합

소형주 효과를 극대화하는 최고의 방법은 24장에서 배운 **GP/A(수익성)** 지표를 결합하는 것입니다. 덩치는 작지만 자산 대비 돈을 버는 능력이 탁월한 소형주는 향후 대형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 과정에서 주가는 수백 퍼센트의 상승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 **리밸런싱 주기:** 소형주는 변동성이 크므로 분기별 실적 발표 때마다 종목을 점검하고 교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분산 투자:** 개별 종목의 리스크가 크므로 최소 10~20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하여 변동성을 관리합니다.

5. 27장을 마치며: 거인이 되기 전의 씨앗을 찾아라

소형주 투자는 미래의 삼성전자를 미리 사두는 작업과 같습니다. 27장의 검색식은 여러분이 시장의 소음에서 벗어나, 작지만 단단한 기초를 가진 '진주' 같은 기업들을 찾아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시장의 틈새에서 초과 수익을 발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28장에서는 주가가 통계적 임계치를 벗어났을 때 발생하는 반등을 노리는 '역발상 퀀트: 과도한 낙폭과 이격도 통계'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28장. 역발상 퀀트: '과도한 낙폭'과 이격도 통계

1. 대중의 공포가 만드는 통계적 기회

주식 시장에서 가장 큰 수익은 대개 대중이 이성을 잃고 투매에 나설 때 발생합니다. 13장에서 다룬 '낙주 매매'가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단기 전략이었다면, 28장의 **역발상 퀀트**는 주가가 통계적 임계치를 벗어날 정도로 과하게 하락했을 때, 평균으로 회귀하려는 강력한 복원력에 베팅하는 전략입니다. "모두가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모두가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리라"는 워런 버핏의 조언을 숫자로 구현한 것입니다.

28장에서는 과거 5~10년 동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가가 이동평균선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나타내는 ****이격도****의 극단값을 분석하여, 승률 높은 반전 지점을 포착하는 로직을 설계합니다.

2. 역발상의 논리: 평균 회귀와 표준편차

모든 주가는 마치 고무줄처럼 중심축(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수렴과 확산을 반복합니다.

- **통계적 임계치:** 특정 종목의 주가가 20일선 혹은 60일선 대비 하락 이격도가 과거 역사적 저점 수준(예: 80% 이하)에 도달했다면, 이는 기업의 가치와 상관없이 '심리적 패닉'에 의한 과매도 상태로 간주합니다.
- **하락의 가속도:**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할수록 반등의 각도 역시 가파르게 형성됩니다. 우리는 이 '각도'와 '이격'이 만나는 지점을 퀀트적으로 찾아내야 합니다.
- **재무적 안전장치:** 역발상 투자의 최대 적은 '상장폐지'입니다. 따라서 9장에서 배운 자본잠식 제외 및 부채비율 제한 조건을 반드시 병행하여 '망하지 않을 기업' 중에서만 낙폭 과대주를 고릅니다.

3. 실전 레시피: '극단적 이격' 추출 공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반등 구간에 진입한 종목을 찾는 설계입니다.

- **이격도 설정:** [이격도] 20일선 대비 현재가 80% 이하 혹은 60일선 대비 현재가 75% 이하. (과거 통계상 반등 확률이 80% 이상인 구간입니다.)
- **과매도 지표:** [RSI(14)] 25 이하 혹은 [MFI(14)] 20 이하. 가격뿐만 아니라 거래량 에너지까지 바닥임을 확인합니다.
- **가격 위치:** [볼린저밴드(20, 2)] 현재가가 하한선 아래로 이탈한 지 2~3봉 이내일 것.
- **수급 변화:** [체결강도] 100% 미만에서 100% 위로 올라오는 찰나. (투매가 멈추고 매수세가 유입되는 신호입니다.)

4. 전략의 핵심: '시간'을 이기는 분할 매수

역발상 퀀트는 정확한 바닥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바닥권'에 들어온 종목을 모아가는 전략입니다.

- **분할 진입:** 임계치 도달 시 1차 매수, 추가 하락 시 정해진 비중대로 2차 매수를 진행하여 평균 단가를 낮춥니다.
- **목표가 설정:** 1차 목표가는 대개 하락의 시작점인 20일 이동평균선 혹은 60일 이동평균선까지의 '회귀'로 잡습니다.
- **리스크 관리:** 만약 주가가 평단 대비 추가로 10~15% 이상 하락하며 지지선을 이탈할 경우, 기계적으로 손절하여 리스크를 제한합니다.

5. 28장을 마치며: 숫자가 주는 용기를 믿어라

남들이 팔 때 사는 것은 공포스럽지만, 그 공포를 '데이터'로 치환하면 용기가 됩니다. 28장의 검색식은 여러분이 시장의 비이성적인 투매 속에서도 냉정하게 수익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시장의 극단적인 심리를 이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29장에서는 여러 개의 퀀트 필터를 결합하여 개별 종목의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의 안정성을 높이는 '멀티 팩터(Multi-Factor) 종합 검색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29장. 멀티 팩터(Multi-Factor) 종합 검색식: '전교 1등' 종목 발굴하기

1. 단일 지표의 한계를 넘는 '입체적 분석'

지금까지 우리는 저PBR(가치), GP/A(수익성), 상대강도(모멘텀) 등 다양한 퀀트 지표를 개별적으로 학습했습니다. 하지만 개별 지표는 시장 상황에 따라 부침이 있습니다. 가치주가 갈 때는 성장주가 쉬고, 모멘텀주가 꺾일 때는 다시 가치주가 주목받습니다. 29장에서는 이러한 개별 전략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요소를 동시에 만족하는 '멀티 팩터(Multi-Factor)' 검색식을 설계합니다. 이는 수학, 영어, 국어를 모두 잘하는 '전교 1등' 종목을 찾아내어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강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2. 멀티 팩터의 논리: 교집합의 마법

멀티 팩터 전략의 핵심은 서로 상관관계가 낮은 지표들을 결합하여 리스크를 분산하고 수익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 **가치(Value) + 수익성(Quality)**: 단순히 싼 종목이 아니라, 돈을 잘 벌면서 싼 종목을 골라내어 '가치 함정'을 피합니다.
- **수익성(Quality) + 모멘텀(Momentum)**: 우량한 기업 중에서도 지금 막 시장의 관심을 받으며 추세가 살아나는 종목을 타격합니다.
- **안정성(Stability)**: 앞선 지표들이 아무리 좋아도 재무적 지뢰가 있다면 과감히 버립니다.

3. 실전 레시피: '슈퍼 퀀트' 종합 검색식

가치, 수익성, 모멘텀을 하나의 논리로 엮은 종합 설계도입니다.

- **1단계: 재무 필터 (생존)**: [부채비율] 150% 이하 AND [유보율] 500% 이상.
- **2단계: 수익성 팩터 (실력)**: [ROE] 10% 이상 혹은 [GP/A] 상위 20% 이내.
- **3단계: 가치 팩터 (가격)**: [PBR] 0.2배 이상 1.2배 이하.
- **4단계: 모멘텀 팩터 (타이밍)**: [주가이동평균배열] $\$5 > 20 > 60\$$ 정배열 초입.
- **5단계: 거래대금**: [거래대금] 최근 5일 평균 50억 이상으로 유동성 확보.

4. 전략의 운용: 분산과 리밸런싱

멀티 팩터 검색식은 종목 수가 적게 추출될수록 그 희소성이 높습니다.

- **종목 선정**: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 중 상위 10~20개를 균등 배분하여 매수합니다.
- **리밸런싱**: 매 분기 실적 발표가 끝난 직후(5월, 8월, 11월, 3월) 검색식을 다시 가동하여 순위에서 밀려난 종목은 팔고 새 종목으로 교체합니다.
- **기다림의 미학**: 여러 팩터가 결합된 종목은 단기 급등보다 꾸준한 우상향을 목표로 합니다.

5. 29장을 마치며: 시스템이 감정을 이긴다

멀티 팩터 검색식은 트레이더의 주관이 개입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숫자가 말하는 대로 사고팔 때, 여러분의 계좌는 비로소 '예측'이 아닌 '통계'의 영역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개별 무기들을 조합하여 거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지막 30장에서는 지금까지 만든 모든 검색식의 최종 수문장이자,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낼 '위험 관리 및 제외 조건'의 총정리를 통해 본 전자책의 대단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30장. 시간외 단일가 공략: '내일의 아침'을 미리 보기

1. 장이 끝난 뒤 시작되는 또 다른 기회

오후 3시 30분, 정규장이 마감되었다고 해서 트레이더의 하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간격으로 체결되는 '시간외 단일가' 시장은 내일 아침의 향방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전초전입니다. 장 마감 후 발표된 대형 공시나 뉴스에 반응하는 종목들은 이곳에서 먼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급과 가격 변동을 분석하면, 다음 날 아침 남들보다 한발 앞서 주도주를 선점할 수 있는 강력한 힌트를 얻게 됩니다.

31장에서는 시간외 거래에서 거래량이 터지며 상승하는 종목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다음 날 '시가 갭' 상승 이후의 흐름을 공략하는 검색식 설계법을 다룹니다.

2. 시간외 상승의 논리: 정보의 선반영

시간외에서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장 마감 후 시장이 환호할 만한 '재료'가 노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거래량의 동반:** 단순히 가격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평소 시간외 거래량보다 압도적인 물량이 체결되어야 신뢰도가 높습니다.
- **상승폭의 기준:** 보통 3% 이상의 상승은 내일 아침 갭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큼니다. 특히 시간외 상한가(10%)에 도달한 종목은 내일 아침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됩니다.
- **재료의 크기 분석:** 단순한 뉴스인지, 기업의 체질을 바꾸는 공급계약 체결이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같은 '공시'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3. 실전 레시피: '시간외 급등주' 추적 공식

시간외 단일가 데이터를 직접 검색식에 넣기는 어렵지만, 정규장 마감 직전의 흐름과 시간외 결과를 조합하여 후보군을 압축할 수 있습니다.

- **장 막판 수급 확인:** [주가등락률] 14:30 대비 15:30 종가가 2% 이상 상승하며 마감한 종목. (종가 매수세 유입 확인)
- **시간외 데이터 결합:** HTS의 [시간외 단일가 순위] 메뉴를 통해 등락률 3% 이상, 거래량 상위 종목을 추출합니다.
- **기술적 위치:** [이격도] 20일선 대비 105% 이내. 이미 너무 오른 종목보다는 바닥권에서 첫 뉴스가 터진 종목이 안전합니다.
- **매물대 확인:** 일봉상 바로 위에 강력한 저항선이 없는지 확인하여 '매물벽'에 막히는 리스크를 제거합니다.

4. 대응 전략: '갭'을 다루는 기술

시간외에서 급등한 종목을 내일 아침 무작정 추격 매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시가 갭의 활용:** 3장에서 배운 '골든 존(3~8%)'을 기억하십시오. 갭이 너무 높게 뜨면 오히려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 **시가 지지 여부:** 장 시작 후 시가를 깨지 않고 지지받으며 거래량이 실릴 때가 진짜 타점입니다.
- **가짜 상승 주의:** 뉴스 없이 세력의 장난질로 시간외 주가만 올린 뒤, 다음 날 아침 개인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설거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5. 30장을 마치며: 내일의 수익을 오늘 예약하라

시간외 단일가 시장은 부지런한 사냥꾼에게만 보이는 '기회의 창'입니다. 31장의 분석법을 통해 장 마감 후의 정적 속에서 요동치는 돈의 흐름을 읽어내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남들이 잠든 시간에도 내일의 승리를 준비하는 트레이더가 되었습니다. 32장에서는 테마주 장세에서 대장주가 멈췄을 때 가장 빠르게 튀어 오를 '2등주 짝짓기' 매매 로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31장. 테마주 대장주 교체 및 '2등주 짝짓기' 로직

1. 무리 지어 움직이는 돈의 속성

주식 시장에서 강력한 재료가 터지면 관련 종목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함께 움직입니다. 이를 '테마주'라고 부릅니다. 테마 형성 초기에는 가장 탄력이 좋은 **대장주**가 상한가에 안착하며 기선을 제압하지만, 대장주가 상한가 문을 닫아버리면 더 이상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대기 매수세들은 즉시 다음 타겟인 **2등주**와 **3등주**로 눈을 돌립니다. 이를 **짝짓기 매매(Pairing Trading)**라고 하며, 대장주의 뒤를 따르는 '확정된 상승'을 먹는 매우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32장에서는 실시간 등락률과 수급 데이터를 결합하여, 대장주가 멈췄을 때 가장 빠르게 튀어 오를 준비가 된 후속주를 포착하는 로직을 설계합니다.

2. 짝짓기 매매의 논리: 커플링과 대장주 효과

테마주 매매의 핵심은 '동조화(Coupling)' 현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 **대장주의 신호:** 대장주가 상한가에 진입하거나 VI(변동성 완화장치)가 발동되는 순간이 2등주 매수의 강력한 트리거가 됩니다.
- **상대적 저평가(심리적):** 대장주가 30% 상승했을 때, 같은 재료를 공유하는 2등주가 10%대에 머물고 있다면 시장은 이를 '싸다'고 인식하며 수급을 쏟아붓습니다.
- **대장주 교체 현상:** 때로는 1등주가 힘에 부쳐 주춤할 때, 수급이 더 강력한 2등주가 대장주 자리를 꿰차며 치고 나가는 '대장주 교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3. 실전 레시피: '준비된 2등주' 포착 공식

대장주를 실시간 감시하며 후속주를 타격하는 설계입니다.

- **테마군 압축:** 관심종목 창에 동일 테마 종목들을 묶어두고, [등락률 순위] 상위 10위 이내에 대장주가 포착되는지 확인합니다.
- **수급의 전이 포착:** [거래량비율] 최근 1분 거래량이 당일 평균 대비 500% 이상 폭증하는 종목. (대장주에서 튕겨 나온 돈이 유입되는 신호입니다.)
- **가격의 탄력성:** [주가등락률] 현재가 10% 이상 20% 이하. 너무 낮으면 소외주이고, 너무 높으면 이미 늦었습니다.
- **체결의 강도:** [체결강도] 150% 이상 유지.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야 2등주도 상한가 근처까지 갈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는 없다

짝짓기 매매는 반드시 대장주의 눈치를 보며 실행해야 합니다.

- **대장주의 붕괴:** 대장주가 상한가에서 풀리거나 급락하면 2등주와 3등주는 그보다 몇 배 더 빠르게 추락합니다.
- **재료의 소멸:** 뉴스에 의한 단발성 테마일 경우, 대장주만 오르고 후속주들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방망이를 짧게 잡아야 합니다.

5. 31장을 마치며: 1등을 보고 2등을 싸라

짝짓기 매매는 직관적이지만 매우 정교한 속도가 필요합니다. 32장의 로직은 여러분이 대장주를 놓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시장의 다음 행선지를 정확히 타격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테마의 흐름을 읽고 '돈의 전이'를 포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33장에서는 신고가 이후 가장 확률 높은 반등 지점인 '첫 20일선 눌림(황금선 반등)'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32장. 신고가 이후 '첫 20일선 놀림': 황금선 반등 전략

1. 주도주는 쉽게 죽지 않는다

시장을 호령하던 대장주가 신고가를 경신하며 무섭게 치고 올라가면, 대다수 개인 투자자는 추격 매수의 유혹과 고점 공포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부사는 주가가 불꽃을 뿜을 때가 아니라, 그 불꽃이 잠시 사그라드는 '**첫 번째 조정**'을 기다립니다. 강력한 시세를 분출했던 종목은 그 안에 막대한 세력의 자금과 시장의 관심이 응축되어 있어, 단번에 무너지지 않고 특정 지지선에서 강하게 튕겨 올라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33장에서는 신고가 이후 발생하는 가장 확률 높은 반등 지점인 '**20일 이동평균선(황금선)**' 터치 구간을 포착하여, 추세의 2차 파동을 공략하는 로직을 설계합니다.

2. 황금선 반등의 논리: 심리적·기술적 배수의 진

20일 이동평균선은 한 달간의 평균 매입 단가를 의미하며, 시장에서는 이를 '생명선' 혹은 '황금선'이라 부릅니다.

- **첫 번째의 회소성:** 여러 번 터치한 지지선은 약해지지만, 신고가 이후 '처음' 내려오는 20일선은 대기 매수세가 가장 강력하게 유입되는 구간입니다.
- **세력의 평단 방어:** 주도주를 핸들링하는 주체 입장에서 20일선은 추세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과 같습니다.
- **에너지의 재응축:** 급격한 상승으로 벌어졌던 이격이 20일선과 맞닿으며 해소될 때, 다시 위로 튀어 오를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3. 실전 레시피: '황금선 타점' 추출 공식

강력한 주도주가 예쁘게 놀리는 종목을 찾는 설계입니다.

- **신고가 이력:** [신고가] 최근 20봉 이내에 250봉(1년) 신고가 발생 기록이 있을 것.
- **거래량의 법칙:** 조정 시 거래량이 상승 시 평균 거래량의 50% 이하로 급감할 것 (세력 이탈 부재 확인).
- **근접 조건:** [가격-이동평균비교] 증가가 20일 이동평균선 대비 1%~2% 이내로 근접할 것.
- **양봉 전환:** [주가비교] 0봉전 증가 > 1봉전 증가. 20일선 근처에서 하락을 멈추고 꼬리를 달거나 양봉이 나오는 찰나를 포착합니다.

4. 전략의 핵심: '낙주'가 아닌 '놀림'을 구분하라

단순히 주가가 많이 빠져서 20일선에 닿는 것과, 주도주가 조정받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 **상승 폭 확인:** [주가등락률] 최근 10봉 이내에 최소 20% 이상의 누적 상승이 있었던 '강한 놈'이어야 합니다.
- **지수 연동:** 18장에서 배운 대로 지수가 급락할 때 함께 밀린 것이라면 지수 반등 시 가장 먼저 튀어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 **손절선 설정:** 만약 20일선을 증가로 강하게 이탈한다면 추세 훼손으로 간주하고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5. 32장을 마치며: 거인의 어깨가 넓어지는 지점

신고가 이후 첫 20일선 놀림은 트레이딩에서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여전히 강력한 '필승 카드' 중 하나입니다. 33장의 검색식은 여러분이 급등주의 화려함에 현혹되지 않고, 가장 안전하고 탄탄한 재진입 시점을 잡을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추세의 시작(4장)부터 조정의 끝(33장)까지 주도주의 모든 생애 주기를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34장에서는 시장의 모든 자금을 흡수하는 '거래대금 폭발' 종목을 통해 그날의 주인공을 단번에 포착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33장. 시장의 미친 존재감: '거래대금 폭발'과 주도주 포착

1. 돈이 몰리는 곳에 수익이 있다

주식 시장에서 수많은 지표가 우리를 현혹하지만, 결코 속일 수 없는 단 하나의 진실은 바로 *****거래대금*****입니다. 주가는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 일시적으로 왜곡될 수 있지만, 수천억 원의 돈이 쏠리는 현상은 시장 참여자 전체의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거래대금이 폭발한다는 것은 그 종목이 단순한 개별주를 넘어 시장 전체의 관심을 받는 *****주도주*****로 등극했음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신호탄입니다.

34장에서는 장 초반 9시 10분 이전에 그날의 주인공을 단번에 포착하는 '머니 플로우(Money Flow)' 검색식 설계법을 통해, 가장 뜨거운 사냥터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웁니다.

2. 거래대금 폭발의 논리: 에너지의 임계점 돌파

거래대금은 시세의 연료입니다. 연료가 가득 차야 기차가 멀리 가듯, 거래대금이 터져야 상승 추세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 **상대적 폭발성:** 단순히 거래대금이 많은 것보다 '평소 대비 얼마나 터졌는가'가 중요합니다. 전일 전체 거래대금을 장 시작 10분 만에 돌파하는 종목은 오늘 작정하고 움직이겠다는 세력의 선전포고입니다.
- **절대적 중량감:** 소형주에서 터지는 100억과 대형주에서 터지는 1,000억은 무게감이 다릅니다. 시장 주도주로 인정받으려면 당일 최소 500억~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 **가격과의 동행:** 거래대금이 터지는데 주가가 오르지 못한다면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위험 신호입니다. 반드시 양봉을 동반한 수급 폭발을 찾아야 합니다.

3. 실전 레시피: '당일 대장주' 선점 공식

9시 초반, 시장의 모든 자금을 흡수하는 종목을 타격하는 설계입니다.

- **수급 폭발 조건:** [거래대금] 0분전(현재) 기준 50억 이상 AND [거래량비율] 0분전 거래량이 1분전 전체 거래량의 20% 이상.
- **가격 탄력성:** [주가등락률] 전일 증가 대비 5% 이상 상승 AND 당일 시가 대비 3% 이상 상승.
- **체결의 질:** [체결강도] 150% 이상. 사는 힘이 압도적으로 강해야 합니다.
- **필터링:** 2장에서 배운 '대상 제외' 조건을 가동하여 우량한 종목 중에서만 대장을 고릅니다.

4. 전략의 핵심: '돈의 꼬리'를 놓치지 마라

거래대금이 폭발한 종목은 당일뿐만 아니라 향후 며칠간 높은 변동성을 유지하며 매매 기회를 제공합니다.

- **놀림목 공략:** 당일 거래대금 1,000억 이상 터진 종목이 다음 날 거래량이 줄어들며 눌린다면, 이는 16장에서 배운 '상한가 다음 날 놀림'보다 더 강력한 반등 후보가 됩니다.
- **섹터의 집중:** 거래대금 상위 10위 안에 같은 테마 종목이 3개 이상 포착된다면, 그날은 해당 테마의 '불꽃 장세'입니다.

5. 33장을 마치며: 당신의 눈을 돈의 흐름에 고정하라

지금까지 1장부터 34장까지, 우리는 조건검색식이라는 정교한 도구를 통해 시장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술적 분석부터 퀀트, 그리고 수급의 정점인 거래대금까지, 이제 여러분의 손에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300개의 강력한 레시피가 쥐어져 있습니다.

검색식은 도구일 뿐,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여러분의 **원칙**과 **실행력**입니다. 숫자를 믿고, 데이터를 사랑하며, 냉정하게 승부하십시오. 여러분의 계좌가 이 긴 여정을 통해 설계된 정교한 로직들로 인해 푸른 바다가 아닌 붉은 태양으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발행일 | 2025. 12. 28.

저자 | Trading Insight

이메일 | bearbull2019@gmail.com

본 자료의 저작권은 BearBull Trading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26 BearBull Trading. All rights reserved.

